

# 9월 모의평가 복습 시트



(가)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나)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

상을 노퍽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퍽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퍽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설음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설음'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방향 보도자료

'영화와 SF(Science Fiction)'를 소재로 한 4~9면 문항은 '대중 예술인 영화와 사회의 관계'를 다룬 (가) 글과 'SF의 개념과 장르적 특징'을 다룬 (나) 글을 지문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문 구성을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SF의 장르적 특징을 관련지어 읽고, 글의 내용을 비판적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였다.

(가)

대중 예술인 영화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 ✓ 영화는 대중 예술이기 때문에 이를 즐기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다는 것은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 맞는 형태로 제작되며, 취향이 달라질 때 발 빠르게 반응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대중 예술**: 향유되고 있는 그 시대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

장르 영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 ✓ 영화가 대중의 취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장르 영화를 들 수 있다.
- ✓ 특정 장르가 유행했다가 침체되는 현상이나 새로운 장르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관습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장르적 특징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과정 모두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 **장르 영화**: 서부극, 뮤지컬, 멜로드라마, 공포 영화 따위처럼 이야기 구조, 세부적인 관습, 상징적인 도상 따위가 반복되거나 변주되는 영화. 영화에서 다루는 이야기의 성격, 영화에 주요한 요소로 등장하는 배경이나 물체, 영화를 전달하는 데 주요하게 쓰이는 노래 따위의 매체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용례]** 장르 영화는 양날의 칼이다. 익숙한 설정들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출처 <<경제투데이 2011년 11월>>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한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에는 대중의 취향뿐만 아니라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 ✓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는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간주했다.
-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개념은 ‘사회가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영화의 내용이 감독이나 작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던 당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 ✓ 그래서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가 취향에 따라서만 만들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당대의 사회가 공유하는 생각이나 가치관, 즉 ‘이념’이 영화에 담긴다는 것이다.

\* **이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용례]** 이념 대립.

# 2020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역사적 고증에 충실한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혹은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통해 역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욕망, 강박, 믿음, 좌절 등의 집단적 무의식과 더불어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본문에 등장한 크라카우어의 견해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에는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 직·간접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영화를 통해 사회의 흔적과 맥락을 읽어 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크라카우어에 따르면,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이다.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

- ✓ 그런데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은 영화에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사회가 불순하다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념은 영화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이면에 감추어진다.
- ✓ 이러한 특징을 두고 크라카우어는 “영화는 드러내면서 동시에 숨기는 매체”라고 말했다.
- 영화를 피상적으로만 감상하면 당대의 취향을 비추는 내용만 보게 되며, 이념과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 **이면**: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용례]** 감정의 **이면**.

크라카우어는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함으로써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영화의 표현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전형적인 모터브나 이미지에 해당한다.
  - 이것만으로는 대중이 공유하는 이념을 온전히 알아낼 수 없다.
- ✓ 이것들이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할 때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다.
  - 영화를 사회적 생산물로 보고 영화를 통해 사회상을 읽어 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표면적인 내용을 넘어 암시와 비유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 영화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 ✓ 1920년대 독일 영화에는 밀실이나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 가시적인 모습만 보면 강압적이거나 무서운 분위기만 느껴질 것이다.
- ✓ 그런데 이것에 감추어진 이면을 보면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1920년대 독일 사회의 대중이 공유하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
  - 가령 밀실이나 광인을 통해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그리고 독재자를 통해 왕정에 대한 향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왕정복고**: 공화 정체나 그 밖의 다른 정체가 무너지고 다시 군주 정체로 되돌아가는 일.

크라카우어가 모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 앞서 확인한 크라카우어는 모터브나 이미지, 즉 영화를 이루는 ‘개별 요소’를 깊게 해석해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면에 드러나는 이미지를 넘어 숨겨진 이념까지 살펴보기 때문에 다층적 혹은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고 말할 수 있다.

- ✓ 반면 프레드릭 제임슨은 영화의 서사, 즉 ‘영화 전반’에 적용되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 영화에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찬우의 Pin Point**

크라카우어가 집중한 개별 상징을 통해서서는 사회의 부분적인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1920년대 독일 영화를 통해서 당시 현실 도피의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전체적인 사회의 모습이 어떤 형상이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임슨은 반대로 영화 전체를 통해 사회의 종합적인 모습이나 구조적인 특징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사**: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 놓은 것.

그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 ✓ 제임슨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다.
  - 그래서 사회에 속한 개별적인 시선이나 견해는 사회를 구성하는 파편 중 일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 ✓ 그러므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특정 시점의 사회를 종합적으로 살펴 정리한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된다.

\* **양상**: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용례]** 소설의 시대별 양상.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 그런데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즉 역사 서술을 위해 특정 시점을 살펴본듯 현재 사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이나 사건 등을 종합적이며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 **조망**: 먼 곳을 바라봄. 또는 그런 경치. **[용례]** 조망이 좋다.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 ✓ 제임슨은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 즉 역사가 아닌 것을 역사로 만드는 것에 주목했다.
- ✓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즉 이미 끝난 사건을 되돌아보듯 서술한다.
  - 이는 역사 연구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와 동일하게 현재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역사/화'라고 명명했다고 볼 수 있다.
- ✓ 그래서 역사가 된 과거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듯, 서사를 통해 현재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 ✓ 그런데 역사화는 회고적인 방식으로 서술하는 서사의 특징을 통해 달성할 수 있으므로, 미래를 다룬 SF의 서사를 통해서도 역사화가 가능하다.
  - SF를 통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사회도 완료된 과거처럼 볼 수 있을 것이다.

**찬우의 Pin Point**

제임슨의 주장을 보면 역사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목표는 '영화에 반영된', 즉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의 내용을 다루는 SF를 통해 어떻게 현재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얻을 수 있을까?

우선 역사화 자체는 '서사가 다루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즉 SF에서 나타나는 역사화는 미래 시점의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서술하여,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런데 미래 시점의 사건에는 이미 흘러간 현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면 당연하게 현재 사회의 모습도 완료된 과거처럼 다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F에서 나타나는 역사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인 양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적인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 ✓ SF는 기존에 이미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허구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 '서사' 예술이므로 앞서 확인한 대로 역사화가 가능하며 사회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

\* SF: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을 과학적으로 가상하여 그린 소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 ✓ 그런데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 기본적으로 SF는 미래 시점의 서사를 담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학이나 기술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사실일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다.
- ✓ 대신 SF에서는 '개연성'이 중요하다.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작품에서 다루는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
  - 이것이 '과학 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SF와 다른 소설을 구분하는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연성을 확보해야 SF라는 장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찬우의 Pin Point**

결론적으로 SF의 기반이 되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의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된 과학적 지식에 비추어 볼 때 그럴 법하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진위: 참과 거짓 또는 진짜와 가짜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용례] 진위를 가려내다.

\* 개연성: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용례] 개연성이 있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 ✓ SF가 제시하는 ‘허구적인 상황 설정’으로부터 만들어진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 ✓ 이러한 경이로움이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성이 된다.
  - 그렇다면 어떤 작품이든 SF에 속한다면 이를 통해 항상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경이로움**: 놀랍고 신기한 느낌. **[용례]** 과학 기술의 **경이로움**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 출처 <<매일경제 2000년 8월>>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다.

- ✓ SF를 연구하는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즉 SF의 장르적 특징을 잘 드러내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 ✓ ‘새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가령 SF 영화에서 감탄을 자아내는 특수한 화면 효과가 한 번 등장했다고 해서 이를 노붐으로 볼 수는 없다.
- ✓ 노붐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여야 한다.
  - 현재를 살아가는 현실의 감상자는 노붐을 통해 SF가 제시하는 세계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 그래서 노붐은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 예를 들어 시간 여행을 다루는 작품의 시간 이동 장치나 기술, 우주를 다루는 작품에서의 블랙홀이나 시간 왜곡 등이 노붐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 노붐의 특성을 종합하면, 노붐이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 노붐으로 인해 서사의 세계관이 구축되며 SF의 장르적 특징이 구현되기 때문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 ✓ 수빈은 SF에서 다루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시대의 지식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들어,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 단순한 허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생산된 당시의 현실과 SF 작품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 ✓ 이를 고려하면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설정 등은 기본적으로는 현실과 다른 요소가 있지만, 현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실과 유사하기도 하다고 볼 수 있다.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낮춤**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 ✓ 수빈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낮춤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찬우의 Pin Point**

너무 현실적인 세계에는 새로움이 없고, 너무 이질적인 세계는 신기하게만 느껴지거나 아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다르게 SF에서는 현실과 유사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서 ‘인지적 낮춤’을 느낄 수 있다.

\* **축발하다**: 어떤 일을 당하여 감정, 충동 따위가 일어나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문체] 사람의 상념이란 반드시 어떤 사상(事象)과 맞부딪침으로 거기서 **축발하기** 마련인 것이다. 출처 <<유치환, 나는 고독하지 않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설'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㉞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 ✓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의 그것과 닮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이 '다름'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게' 느끼게 된다.
  - 한편 노름이 현실 세계와 SF 작품 속 세계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고려하면, 노름으로 인해 인지적 낯설음이 발생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 ✓ 그런데 감상자는 작품에서 낯설음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현실과의 거리를 획득한다.
  -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므로 거리감을 느낄 것이다.
-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 ✓ 종합하면, 인지적 낯설음은 감각적 충격(낯설)을 통해 이성적 성찰(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에 도달하는, 정서적(감각적)이고 지적(이성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찬우의 Pin Point**

수빈은 SF를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는 (가)의 크라카우어와 제임슨이 영화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 부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 ✓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으며, 이를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른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 ✓ 인간이 동경하던 낯선 미지의 세계에는 '유토피아'도 있는데, 수빈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른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 이에 따르면 SF에서 다루는 세계가 이상 세계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유토피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 [문체] 유토피아를 꿈꾸다.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 ✓ 오늘날 환경 오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 ✓ 그럴수록 유토피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상상할 수 있게 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찬우의 Pin Point**

SF는 장르적 특징으로 인해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무엇인지(유토피아)를 상상하게 한다. 이것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SF가 가지는 의의가 된다.

0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4%	72%	7%	7%	11%
언매	2%	82%	4%	4%	8%

① (가): 영화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티브는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을 투명하게 드러낸다.  
 → 영화에서 전형적인 모티브는 영화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만, 특정 시대의 대중이 공유하고 있는 이념은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를 읽어 내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가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해야 한다.

② (가): 크라카우어는 독일 영화들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자의 이미지에서 불순하다고 여겨지는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본다.  
 → 크라카우어는 사회에서 불순하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이념은 영화의 이면에 감추어진다고 본다. 1920년대 독일 영화에서는 밀실, 광인, 독재자 등을 담은 이미지가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크라카우어는 이러한 이미지의 이면에서 패전 이후 독일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현실 도피의 퇴행적인 심리와 왕정복고를 바라는 정치적 이념을 읽어 낼 수 있다고 본다.

③ (나):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은 SF의 허구적 설정을 통해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다.  
 → 수빈에 따르면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설'을 유발하는 것이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이다. SF의 허구적 설정은 이 간격을 좁히는 기능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허구적 설정으로 인해 SF 속 세계와 현실 세계 간의 다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 수빈은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은 SF의 소재로 부적절하다고 본다.  
 →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름'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노름이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본다. 이를 고려하면 수빈은 당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상이 SF의 소재로 적절하다고 볼 것이다.

⑤ (나):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닮았다는 점을 깨달아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능하다.  
 → 수빈에 따르면 SF 작품의 허구적 세계가 현실 세계와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05. '프레드릭 제임슨'의 견해를 바탕으로, ㉠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9%	71%	9%	7%	4%
언매	8%	78%	6%	4%	3%

㉠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① SF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하여 사회의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드러낸다.  
 → (나)에 따르면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SF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묘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러나 제임슨은 '역사화'를 통해 '사회 발전 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전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현재의 사회 그 자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영화의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②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제임슨은 역사화를 통해 '오늘날의 사회', '우리가 속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미래 시점의 세계를 다루는 SF에서도 역사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미래에는 이미 흘러간 현재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를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하면 당연하게도 그 이전 시점에 해당하는 현재 사회의 모습도 완료된 과거처럼 다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다룬 SF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SF는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담아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게 한다.  
 → SF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되는 내용을 다룬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제임슨이 SF에 대한 역사화를 통해 사회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려는 것도 아니다.

④ SF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줌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한다.  
 → SF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재구성하여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임슨은 역사화를 통해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 ⑤ SF는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총체적 면모에 주목하게 한다.
- SF는 미래 시점에서 시작해서 현재 시점을 향해 전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한편 제임슨이 SF의 역사화를 통해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역사화를 통해 총체적 면모에 '주목'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06. 다음의 입장에서 [A]를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6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5%	8%	7%	24%	55%
언매	4%	5%	5%	22%	63%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 준다. SF 작품들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공간적으로 분리되고 차단됨으로써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런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너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 준다.

**찬우의 Pin Point**

제시된 입장의 핵심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기준으로 현실 세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수빈은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에서, SF에서 그리는 이상적 가치에 대한 탐색을 말하고 있다.
  - 수빈은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부정적 양상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고 할 수 없다.
- ②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의 근원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 수빈은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수빈이 SF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하지만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유토피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점을 보면, 수빈은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빈은 유토피아에 근원적인 모순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 ③ SF가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계승한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한 것이다.
  -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른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한다. 이를 종합하면 수빈은 인간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SF가 계승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수빈의 생각은,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변하지 않고 이어진다는 인식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수빈의 생각이 유토피아에 대한 인간의 갈망이 항구적임을 ‘간과’했다고 볼 수 없다.

\* 항구적 : 변하지 아니하고 오래가는 것. [용례] 항구적인 해결책.

- ④ 수빈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지만,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된다.
  - 제시된 입장에 따르면 수많은 SF 영화나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 준다. 그런데 SF 속 유토피아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를 고려하면 제시된 입장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수빈은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이 SF의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A: 제시된 입장에서 언급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은, 수빈의 주장 중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 ‘이상적인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과 대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수빈은 허구적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을 ‘충족’해 왔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수빈은(제시된 입장과 다르게 유토피아의 존재와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유토피아를 소재로 하는 SF를 통해서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즉 현실을 벗어나려는 욕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SF를 통해 현실 너머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 수빈은 현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제시된 입장에 따르면 수빈과 다르게, 유토피아는 근본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며, 그러므로 유토피아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A]를 평가하면 수빈의 위와 같은 생각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07. **노름, 인지적 낮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7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5%	18%	5%	14%	59%
언매	3%	14%	2%	11%	70%

- ① 노름은 현실 세계와 작품 속 세계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요소이다.  
→ 노름은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 ② 노름은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상이다.  
→ 노름은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이므로, 당대의 지식이나 기술로는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노름은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 노름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 ④ 인지적 낮섬은 친숙함을 주던 일상적인 대상이나 세계에 대해 낮섬을 느끼게 되는 경험이다.  
→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수빈은 이때 느껴지는 낮섬을 인지적 낮섬이라고 불렀다.
- ⑤ 인지적 낮섬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 인지적 낮섬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즉 감각적 충격이 우선되며 이것이 이성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성적 성찰이 감각적 충격에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수반되다 : 1. 붙좃아져서 따르게 되다.  
2.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기다. **올레** 산업 개발에 환경 파괴가 수반된다.

08. <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 (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8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51%	6%	7%	25%	10%
언매	67%	4%	4%	19%	7%

〈 보 기 〉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OO」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 ①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 <보기>에서 ‘지상’을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영화의 표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난 전형적인 모티브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언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에 따르면 이것만으로는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로 볼 수 없다.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 암시하고 비유하는 것을 해석해야 이면에 감추어진 이념을 읽어 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 따르면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나)에 따르면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보기>에서는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가 ‘압도적’이라고 평가하는데, 이것은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경이로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 있겠군.

→ (나)에 따르면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보기>에서는 주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가)에 따르면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파악할 수 있으나, 서사는 사건을 회고적인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서사를 통한 '역사화'라 하며,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 그러므로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SF 영화의 서사를 통한 역사화에 기반하여 분산적이고 파편적인 사회를 종합적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가)에 따르면 장르의 전형적인 관습이 형성되고 변형되는 과정에는 대중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09.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9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91%	1%	3%	1%	4%
언매	96%	1%	1%	1%	2%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 ① ㉠: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실화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 곁에 있어도 그와 두었던 거리는 멀어지기만 했다.

- ㉠: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
- ㉡: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

- ② ㉠: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큰 미련을 두지 마라.  
 ㉡: 그는 할 수 없이 산 아래 두었던 본진을 포기했다.

- ㉠: 생각 따위를 가지다.
- ㉡: 진영 따위를 설치하다.

- ③ ㉠: 뜻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길이 펼쳐진다.  
 ㉡: 우리는 올해부터 체력 증진을 목표로 두려고 한다.

- ㉠: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
- ㉡: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

- ④ ㉠: 사랑하는 누이를 뒤에 두고도 떠날 수밖에 없었다.  
 ㉡: 나는 이사를 하면서 큰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 ㉠: 가져가거나 데려가지 않고 남기거나 버리다.
- ㉡: 세상이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지 않고 얼마간 떨어져 있다.

- ⑤ ㉠: 우리들은 환경 문제 해결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다.  
 ㉡: 그는 결승선을 겨우 6미터 앞에 두고 힘이 빠졌다.

- ㉠: 중요성이나 가치 따위를 부여하다.
- ㉡: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 기피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속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 및 편집하여 미디어를 통해 알리는 지적 활동이다.

- ✓ 저널리즘이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일련의 규칙에 따라 취재하고 편집해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지적 활동을 뜻한다.
  - 저널리즘이 다루는 것은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이다. 즉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일이 저널리즘의 보도 대상이 된다.
  - 저널리즘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 정보를 취재하고 편집한다. 이를 고려하면 단순히 정보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규칙은 정확한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거나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일 것이다.

- \* **저널리즘**: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활동. 넓게는 라디오, 텔레비전 따위를 통하여 정보 및 오락을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 \* **시사**: 그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적 사건. [용례] 시사 문제.
- \* **현안**: 이전부터 의논하여 오면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문제나 의안. [용례] 국정 현안.

20세기 중·후반에 언론은 주로 권력 집단과 관련된 사안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 기피하였다.

- ✓ 그런데 과거 언론은 권력 집단과 관련된 내용을 피상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권력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 권력이 대중의 삶에 영향을 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깊은 분석이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피상적으로만 이를 다루었다면 ‘공적 관심이 큰 시사 현안’을 다룬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 과거 언론 활동은 저널리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 그래서 당시 보도 내용은 공중이 체감하는 일상과 괴리를 보였고, 문제를 알리는 경우도 지속적이지 못한 단발성 보도에 그쳤다.
  - 일상과 현실에 동떨어진 언론은 공중의 실질적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결국 공중은 뉴스를 멀리하게 되었다.

\* **피상적**: 본질적인 현상은 추구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에만 관계하는 것. [용례] 시간이 부족해서 사건을 **피상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 '공공 저널리즘'이 등장했다.

-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공 저널리즘'이다.
- ✓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 활동**이다.
  - 더 이상 권력 중심의 보도에 머무르지 않고, 대중이 실제로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사실이나 문제를 다룰 것이다.

\* **공중**: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용례] 국가의 정책 결정에는 소수보다는 다수가, 특권층보다는 **공중**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 ✓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 즉 공공 저널리즘이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공공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제시했던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 우선 리프만은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며, 각자가 각자의 고정관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 ✓ 이에 더해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공중이 국가나 사회 차원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지식도 없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 리프만이 인식한 공중은 각자의 상황에 국한된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그래서 그는 언론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 ✓ 리프만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언론의 역할로 보았으며, 이는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언론을 공중과 상반되는 대상으로 상정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이고 비전문적인 공중에게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언론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찬우의 Pin Point**

현재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에 집중하자. 공중을 사실상 열등한 존재로 평가하며 오히려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리프만의 견해는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 활동인 공공 저널리즘과 배치된다. 그러므로 리프만과 상반된 입장을 가진 듀이의 견해에서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듀이의 주장에 무게를 두고 독해해야 한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 ✓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에 더해 리프만의 주장을 고려하면, 듀이가 말하는 '합리적 존재'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다거나 충분한 전문 지식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①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 그렇지만 듀이는 공중이 파편화되었다고 보고,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합리적인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찬우의 Pin Point**

공중을 이루는 개인들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공중이 결합해서 공적 담론의 장에 함께 모여 각자가 가진 문제와 필요를 내어놓고 논의할 수만 있다면, 시사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듀이가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 저널리즘이란 사회를 이루는 타인의 필요와 문제를 공론화해서 공중이 이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담론의 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담론** :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 **공론장** 담론을 즐긴다.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 ✓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한다.
  - 공중은 언론으로부터 공공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 ✓ 그래서 다양한 층위의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시켜서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공중에 의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공공 저널리즘의 목적이 있다고 로젠은 말한다.
  - 듀이의 입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찬우의 Pin Point**

공공 저널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리프만과 듀이라는 두 인물을 비교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사실상 공공 저널리즘에 부합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듀이와 로젠이다. 이를 파악하고 듀이와 로젠의 주장을 바탕으로 공공 저널리즘을 이해해야 한다.

\* **공론장** :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장소나 환경. **공론장** 인터넷이 요즘 **공론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 ✓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모여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을 토의할 수 있도록,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회의, 인터뷰 등은 사회적 현상이나 문제, 주장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공공 저널리즘이 이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면 공중은 이를 바탕으로 토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과학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를 구성하는 공중의 실제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위 행위를 ‘사회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 ✓ 언론이 형성한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은 자연스럽게 언론에 의해 보도될 것이다.
  - 그렇다면 공공 저널리즘은 각 계층의 문제를 공중에 전파하여 공론장으로 이끌고, 토의에 사용될 근거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공중이 공론장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수 있게 하며, 이렇게 도출된 논의 결과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다.
- ✓ 로젠은 이 보도가 실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찬우의 Pin Point**

로젠은 공론장에서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공중이 특정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으로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공 저널리즘이 형성한 공론장 자체가 공공 문제의 해결을 방안을 토의하는 곳임을 상기하면, 앞서 진행되던 주장의 흐름과 완벽히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서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면 예외로 간주하고 추후 문제에서 질문하면 다시 확인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이 ㉔ 적합한 대상을 취재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 그런데 언론은 근본적으로 적합한 대상을 취재해서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 ✓ 지금까지 살펴본 공공 저널리즘은 결국 공중의 실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보도의 대상이 되는 특정 계층이나 일부 집단에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주관성이 개입될 위험이 있다.
  - 이것이 심화되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잃고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선전 매체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㉔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대상을 선정하고 자료를 취합 및 분석하는 등의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속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 ✓ 이러한 비판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방법론적 객관주의를 달성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 ✓ 공공 저널리즘이 공중의 관심사를 다룬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아무 내용이나 보도한다는 것이 아니다. 취재 과정에서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므로 주관성 개입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 방법 자체가 보장하는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 이렇게 준비된 보도는 주관적이거나 편향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달받은 공중이 스스로 문제를 깊이 따져볼 수 있는 재료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0.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2%	3%	5%	7%	83%
언매	1%	1%	2%	5%	91%

- ① 듀이는 공중을 어떠한 존재로 보았는가?
  -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 ② 공공 저널리즘이 중심 의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의 관심사를 보도의 중심 의제로 삼는다.
- ③ 공중의 일상과 괴리된 보도가 불러온 결과는 무엇인가?
  - 20세기 중·후반에 보도 내용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인 공중의 일상과 괴리되고, 일회적 문제 제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중은 뉴스를 기피하였다.
- ④ 공공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 언론인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과정에서 공중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주관성이 개입되면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들어, 공공 저널리즘은 언론의 객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에 대해 마이어는 공공 저널리즘이 사회 과학적 방법을 통해 달성되는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속고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 ⑤ 언론인의 전문화는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 밑글에서 리프만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언론인의 전문화'가 어떠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밑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1.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1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6%	4%	5%	82%	3%
언매	4%	2%	2%	91%	1%

㉠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

- ①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듀이와 상반되는 리프만의 주장에 해당한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 ② 공중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로 한다.  
→ ㉠을 위해 듀이는 공적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한다면 문제를 논의할 공적 담론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 ③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 ㉠을 위해 수행하는 언론의 역할이 바로 공공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 저널리즘을 통해 공적 담론의 장을 만들고 그곳에서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며 논의할 때 ㉠이 가능해질 것이다.
- ④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  
→ 듀이는 ㉠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이때 공적 담론의 장이란 합리적인 존재인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는 곳이 바로 공적 담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녀야 할 요건이다.  
→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12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6%	6%	8%	69%	11%
언매	4%	3%	4%	82%	7%

< 보 기 >

**[사례 1]** A 지역 ○○신문사는 지역민 인터뷰를 통해 그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범죄 문제에 관해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역 자문단 회의에서 범죄 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신문사는 그 결과를 취합·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시민 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A 지역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다.

**[사례 2]** B 지역 △△신문사는 설문을 통해 지역민의 최근 관심이 지역 경제 위기임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지역민 대상의 집단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행사 유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전문가는 B 지역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는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B 지역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 ① [사례 1]에서 치안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 듀이와 로젠은 모두 공공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겠군.  
→ [사례 1]에서는 지역민이 자문단에 참여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언론이 보도하며, 시민 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치안상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듀이와 로젠은 모두 공중이 공적 담론의 장 혹은 공론장에 참여해서 공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그리고 언론이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공공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중이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② [사례 1]에서 신문사가 지역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한 것에 대해, 듀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겠군.  
→ [사례 1]에서 신문사는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전문가 등을 모아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자문단 회의를 통해

서로 논의하도록 했다. 즉 이들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유도했다고 할 수 있다. 듀이는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③ [사례 1]에서 신문사가 공정한 절차로 지역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단 회의의 논의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한 것에 대해, 마이어는 취재 과정에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하겠군.
  - [사례 1]에서 신문사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이 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므로 마이어는 취재 과정에서 사회 과학적 방법을 사용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즉 방법론적 객관주의에 중점을 두어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공중의 속고를 촉진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④ [사례 2]에서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에 대해, 로젠과 마이어는 모두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겠군.
  - [사례 2]에서는 언론이 지역민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으나 지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대하여 우선 로젠은 언론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마련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회의를 통해 논의했으므로, **공론장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즉 로젠은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것이다.
  - 그러나 마이어는 신문사가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것을 두고, 방법론적 객관주의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할 것이다.**
- ⑤ [사례 2]에서 신문사가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회의하며 논의한 것에 대해, 리프만은 공중에 대한 자신의 관점에 비추어 신문사의 취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하겠군.
  - 리프만은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가 드물고,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전문적인 언론인을 갖춘 언론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그러므로 [사례 2]에서 언론에 해당하는 신문사가 공중에 해당하는 지역민과 인터뷰하고 수차례 논의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 13. 문맥상 ㉠~㉥와 바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1%	1%	96%	1%	1%
언매	0%	0%	97%	1%	1%

- ① ㉠: 동떨어지고
  - **괴리되다**: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지다. [용례] 현실에서 **괴리된** 문학은 감동이 적을 수밖에 없다.
  - **동떨어지다**: 둘 사이에 관련성이 거의 없다. [용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
- ② ㉡: 멀리하였다
  - **기피하다**: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하다. [용례] 병역을 **기피하다**.
  - **멀리하다**: 어떤 사물을 삼가거나 기피하다. [용례] 여자를 **멀리하다**.
- ③ ㉢: 깨달을
  - **분별하다**: 세상 물정에 대한 바른 생각이나 판단을 하다. [용례] 명색이 사리 **분별할** 줄 안다고 자처하는 유생들인데, 우리와 싸워 이로울 게 없다는 것쯤은 깊이 요량하고 있을 거요. 출처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깨닫다**: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다. [용례] 잘못을 **깨닫다**.
- ④ ㉣: 알맞은
  - **적합하다**: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다. [용례]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
  - **알맞다**: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 [용례] 학생 신분에 **알맞은** 옷차림.
- ⑤ ㉤: 이루어지는
  - **달성되다**: 목적인 것이 이루어지다. [용례] 생산 목표가 **달성되었다**.
  - **이루어지다**: 1.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 [용례] 합의가 **이루어지다**.  
2. 뜻한 대로 되다. [용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굽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 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다.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지각부호화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즉 지각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 ✓ 소리 특히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매체의 발명 과정에 따라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 매체는 소리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장치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2015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A)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선되는 상황을 다룰 때는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빛의 조명 기구는 빛을 사용해 공간 등을 밝게 비추는 기구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에 따른 효율이나 수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본문의 ‘매체’가 소리를 ‘저장’하는 도구라는 점에 주목하면, 최대한 원음에 가깝게, 그리고 적은 공간이나 비용으로 소리를 저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매체**: 어떤 작용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물체. 또는 그런 수단. **온라인 방송 매체**.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한다. 바늘 아래에 섬세하게 굽히는 회전판을 대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판에 홈을 만들어 소리를 저장한다.

- ✓ 소리를 저장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인 축음기의 원리를 확인해 보자.
- ✓ 끝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뿔형 나팔을 준비하고, 바늘에 의해 섬세하게 굽히는 회전판을 바늘 아래에 배치한다.

- ✓ 나팔에 소리를 입력하면 소리가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에 따라 움직이는 바늘이 회전판을 긁어 홈을 만든다.
  - 회전판에 새겨진 홈이 소리 정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축음기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회전판이라는 매체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초기 녹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 ✓ 축음기는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 소리가 만든 연속적인 진동의 형태 그대로를 저장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 ✓ 이후 새로운 매체가 발명되었지만, 한동안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한다는 점은 유지되었다.

\* **아날로그**: 물질이나 시스템 등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物理量)으로 나타내는 것.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 ✓ 매체가 더욱 발전한 오늘날은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정보로 바꾸어 저장한다. 소리 정보를 담고 있는 이진수를 오디오 신호라고 할 수 있으며, 만들어진 오디오 신호는 파일의 형태로 저장된다.
  - 회전판과 같은 물리적 요소에 소리의 형태를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날로그 형태로 소리를 저장할 때 비해 운송이나 저장 등이 훨씬 쉬워졌다고 볼 수 있다.

\* **디지털**: 여러 자료를 유한한 자릿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식.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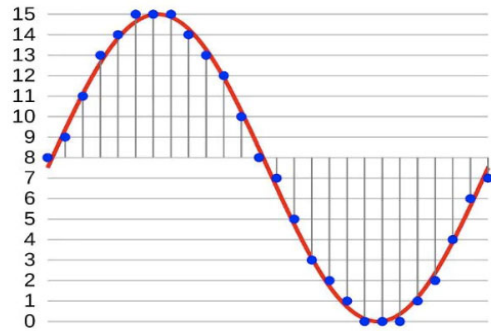
- ✓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다는 것은 '소리의 크기'를 '이진수'로 표현하고, 그 값을 저장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16비트를 사용하는데, 모든 소리를 크기에 맞게 16자리의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소리의 '크기'를 저장한다는 서술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음악의 경우 다양한 악기나 목소리로 구성되는데 소리 크기만 저장하면 어떻게 다양한 음색을 저장할 수 있느냐?

A: 앞서 제시된 축음기가 소리가 만드는 '진동'의 형태를 저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리가 진동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 형태로 소리를 저장한다는 것은 이 진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이고,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는 것은 진동의 형태를 이진수로 '표현'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진수로 소리의 크기를 저장한다는 것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소리의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진동의 크기(형태)를 숫자로 표현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장된 이진수 값에 맞게 같은 시간 순서대로 진동을 발생시키면 원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므로, 소리를 '저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2017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아노 소리가 심벌즈 소리보다 듣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 중 전자를 고른음, 후자를 시끄러운음이라고 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지만 시끄러운음은 주기성을 갖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에서 '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른음을 지칭한다. 고른음은 주기성을 갖기 때문에 동일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때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진동수라고 한다. 진동수가 커지면 음높이 즉, 음고가 높아진다.** 고른음 중에서 파형이 사인파인 음파를 단순음이라고 한다. 사인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단순음은 소리의 세기가 커진다.** 대부분의 악기에서 나오는 음은 **사인파보다 복잡한 파형을 갖는데 이런 파형은 진동수와 진폭이 다른 여러 개의 사인파가 중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복합음이라고 하고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을 부분음이라고 한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리라는 것은 ‘파형’, 즉 파동의 형태를 가진다. 축음기에서 바늘을 통해 저장한 소리의 진동, 그리고 오디오 신호가 이진수를 통해 표현하려는 것이 바로 파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 ✓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어나면 소리 크기를 더 세분화해서 저장할 수 있다.
- ✓ 따라서 비트를 많이 사용할수록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저장할 수 있다.

# 2010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보기 〉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한다. 연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면, 이진수를 처리하는 횟수가 적어질수록 연산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n자리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n비트가 필요하고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sup>n</sup>개 존재한다.** 일반 컴퓨터는 한 개의 비트에 0과 1 중 하나만을 담을 수 있어, 두 자리 이진수인 00, 01, 10, 11을 2비트를 이용하여 연산할 때 네 번에 걸쳐 처리한다.

\* 비트(bit): 컴퓨터가 0과 1을 이용하는 이진법으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최소의 정보 저장 단위.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대표적인 방식인 이진수의 개념은 다양하게 출제되었다.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비트’라는 단위이며, 비트는 0과 1 중 하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n자리의 이진수를 나타내기 위해 n비트가 필요하며, n비트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이진수는 2<sup>n</sup>개이다.

이때 이진수를 통해 특정한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n자리의 이진수를 통해 2<sup>n</sup>개의 정보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파악할 수 있다. 본문에서처럼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면 소리 크기 정보를 2<sup>16</sup>개로 세분화해서 저장할 수 있다. 만약 2비트만 사용했다면 윗글의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소리 크기를 4단계로만 구분해야 하므로, 소리의 형태를 세밀하게 저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 ✓ 이렇게 만들어진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
  - 오디오 파일이 소리를 저장하는 매체를 고려하면, 저장 및 전송이 어렵다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 ✓ 그래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것은 사용하는 비트 수가 많다는 것이므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는 것은 더 적은 비트만으로 저장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그렇지만 압축 결과 소리의 품질이 떨어지면 소리를 저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 소리 정보를 지키면서 비트를 적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이후 내용을 파악해 보자.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에는 지각부호화를 이용한다.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 ✓ 오디오 신호 압축을 위해 ‘지각부호화’라는 기술이 있다. 이는 청각 특성에 따라서 감도가 낮은 소리, 즉 청자가 지각하지 못하는 소리를 제거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 지각부호화를 사용하면 저장된 정보가 변한다. 즉 압축으로 인한 정보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손실을 지각할 수 없는 청자는 압축된 오디오 신호를 통해 원음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으므로, 정보 손실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제거된 소리에 해당하는 비트를 절약할 수 있으므로, 기존보다 저장 및 전송이 수월할 것이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B)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본문의 지각부호화와 마찬가지로, 윗글의 동영상 압축에서 ‘화질의 차이’가 거의 없도록 압축하는 것은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만을 제거해서 압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압축 이후에 정보가 유실되면 정보를 저장한다는 저장 매체의 근원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감도**: 외부의 자극이나 작용에 대하여 반응하는 정도. [용례] 파리와 개미는 단맛에 대한 **감도**가 비상하다.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에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 ✓ 지각부호화에서 이용하는 청각 특성으로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가 있다.
  - 모두 소리를 어떻게 지각하는지와 관련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 ✓ **최소/가/청/강도**는 **듣는 것이 / 가능한 / 소리의 최소 / 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개념 그대로, **최소가청강도**보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으나 작은 소리는 들을 수 없다.
  - ‘**조용할 때**’는 ‘**외부의 방해가 없을 때**’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가청강도**보다 낮은 소리는 절대 들을 수 없으며, 저장할 필요가 없는 소리 정보라고 할 수 있다.
  - **최소가청강도**보다 낮은 소리는 압축의 대상이 될 것이다.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별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 ✓ **최소가청강도**는 주파수에 따라서 크기가 정해져 있다. 즉, 주파수에 따라 고유한 값이다.
- ✓ 가령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최소가청강도**가 낮은 것이다.
- ✓ 하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 **최소가청강도**가 높은 것이다.
  - **최소가청강도**를 고려해서 압축하면 고음보다 저음 영역에서 많은 정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곧 저음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소리는 지각부호화 과정에서 더 많이 압축될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 ✓ 한편,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한다.
  - 조용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최소가청강도**와 달리, 다른 소리와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차폐**이다.
  - 차폐로 인해 들리지 않게 된 소리 역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 ✓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고 한다.

\* **차폐**: 가려 막고 덮음.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주파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저음에서보다 **임계대역**이 훨씬 넓다.

- ✓ **차폐음**의 주파수에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 즉, **차폐음**이 어떤 소리인지에 따라서 **차폐**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이 달라진다.

- ✓ 이를 고려하면 특정 차폐음에 의해 차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파악할 수 있다.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임계대역이라고 한다.
- ✓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의 차폐음은 저음의 차폐음보다 훨씬 넓은 임계대역을 형성한다.

\* **임계**: 어떠한 물리 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이라 한다.

- ✓ 차폐 문턱값은 차폐를 고려했을 때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나타낸다.

**찬우의 Pin Point**

차폐 현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가 다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큰 소리는 차폐음이 존재하더라도 당연히 들을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기준이 바로 차폐 문턱값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한 상황에서 최소가청강도를 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듯, 차폐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차폐 문턱값을 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다.

차폐 문턱값을 고려하면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이라는 차폐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최소가청강도를 넘었기 때문에 차폐음이 없다면 들을 수 있을 소리가, 차폐 문턱값을 넘지 못해(차폐음으로 인해) 들리지 않는 현상이 바로 차폐인 것이다.

이때 차폐 현상이 차폐음 및 차폐를 당하는 소리의 주파수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폐 문턱값 역시 주파수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래서 두 소리의 주파수가 가까울수록 차폐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은, 차폐를 당하는 소리의 주파수 위치에서 차폐 문턱값이 높아서 소리 크기가 최소가청강도보다 꽤 커도 지각되기 어렵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임계대역의 경계에 가까운, 차폐되기 어려운 소리란 최소가청강도와 해당 소리 주파수의 차폐 문턱값이 거의 동일해서 차폐로 인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았다고 하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 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윗글을 통해 상태를 바꾸는 기준이 되는 값을 문턱값이라고 한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었다.

\* **문턱값**: 작동 상태를 바꾸는 기준이 되는 값. 예를 들어, 다이오드에서는 전압의 크기가 이 값 이상이 되어야 전류가 흐른다.

지각부호화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 ✓ 지각부호화에서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청자가 지각할 수 없는 소리를 찾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한다.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누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하여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 ✓ 지각부호화에서는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눈다.
  - 최소가청강도와 차폐를 보면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임계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리를 여러 개의 주파수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대역에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고려해 제거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그리고 각 임계대역에서 최소가청강도와 차폐음을 고려해 차폐 문턱값을 구한다.

**찬우의 commentary**

실제로는 지각부호화에서 사용하는 임계대역이라는 개념이, 앞서 확인한 임계대역의 정의된 개념과 다르다. 오디오 파일에 실제로 존재하는 차폐음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존재하는 임계대역을 찾아낸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구간으로 나누는 과정이 '선행'된다. 그래서 오디오 신호를 '먼저' 주파수에 따라 여러 개의 임계대역으로 나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각 특성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각 부호화라는 '기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난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적인 오디오 신호 압축을 위해서는 오디오 파일에 속한 모든 소리를 분석해서 차폐음을 찾고, 이로 인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산은 비효율이 크기 때문에 연산의 효율성이나 청각 특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음들이 모여 있는 구간을 나누고, 그 안에서만 차폐 현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동작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것이 차폐음과 임계대역이라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임계대역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문에서는 이러한 실제 과정(기술적인 내용)을 세세하게 이해하기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최소가청강도와 차폐라는 청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고, 이를 삭제하면 청각적으로는 동일한 소리를 적은 비용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차폐를 설명할 때 사용한 임계대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연 없이 지각부호화를 가볍게 설명한 것이며, 문제에서도 이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왜 '차폐 문턱값'을 구하는데 최소가청강도를 고려 하나요?

A: 차폐 문턱값의 정의된 개념은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그래서 차폐 문턱값은 항상 최소가청강도보다 클 수밖에 없다.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한 상황에서, 즉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황(차폐가 없을 때)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만약 특정 임계대역에서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는 조용한 상황과 동일하므로, 이를 고려했을 때 차폐 문턱값을 최소가청강도와 같은 값으로 설정하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금 말하는 차폐 문턱값이란, 외부의 방해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구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라고 이해하면 적절하다. 결국 이를 넘지 못하면 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즉 지각부호화는 각 임계대역마다 다른 개수의 비트를 할당하여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 ✓ 특정 임계대역에 존재하는 소리의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해당 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양한 크기의 소리를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해당 임계대역에는 비트를 많이 할당해서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 반대로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작다면, 존재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범위가 좁아서 소리 크기가 다양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비트를 적게 할당할 수 있고, 그만큼 데이터를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 ✓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아예 들리지 않으므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 해당 대역에 비트를 할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 이러한 방식으로 소리를 압축하면 소리의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저장 및 전송에도 용이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수 있다.

**14. 내용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뒷글을 읽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4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5%	8%	67%	12%	8%
언매	3%	5%	80%	8%	5%

- ① 1문단에서 초기 녹음기의, 2문단에서 최근 매체의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었다.  
→ 1문단에서는 초기 녹음기인 축음기의 음악 저장 방법을 설명했고, 2문단에서는 소리를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하는 현재 방식을 설명했다. 따라서 그 차이점을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② 2문단에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을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 2문단에서는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이 저장하거나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거나 전송할 때의 난점으로 인한 오디오 신호 압축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③ 2문단에서 소리 크기를, 3문단에서 청각 특성을 각각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두 변수의 관계를 이해하며 읽었다.  
→ 2문단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소리를 저장할 때 이진수로 표현하는 대상이 소리의 크기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리 크기가 압축의 변수라고 언급한 것은 아니다. 한편 3문단에 따르면 지각부호화는 청각 특성을 사용해서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청각 특성은 압축의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④ 3문단에서 최소가청강도에 대해 설명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이해하며 읽었다.  
→ 3문단에서는 최소가청강도의 개념을 소개하고, 주파수별로 최소가청강도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따라서 소리의 감지와 주파수의 관련성을 이해하면 읽은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 ⑤ 4문단에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를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5문단에서 압축의 과정을 이해하며 읽었다.  
→ 4문단에서는 지각부호화가 오디오 신호 압축에 사용하는 차폐라는 현상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임계대역과 차폐 문턱값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리고 5문단에서는 이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서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지를 다루었다. 따라서 4문단에서 언급한 오디오 신호 압축에 관여하는 요소에 주목하고, 5문단을 통해 압축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읽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1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4%	24%	55%	11%	6%
언매	2%	17%	71%	6%	3%

- ① 초기 녹음기는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과 마찬가지로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 오디오 신호를 저장한 파일은 소리를 디지털 신호로 저장하지만, 초기 녹음기인 축음기는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 ②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은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와 달리,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 축음기의 판에 새겨진 홈과 오디오 신호의 이진수 모두 저장된 소리에 해당한다.
- ③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는 소리 크기마다 할당된 비트의 개수가 동일하다.  
→ 파일로 저장된, 압축 전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 ④ 비트를 많이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네트워크 전송에 적합하다.  
→ 비트를 많이 사용해서 오디오 신호를 저장할수록 데이터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 양이 많다면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어렵다.
- ⑤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때, 소리의 품질 저하가 최소화 되도록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한다.  
→ 오디오 신호는 디지털 신호이며, 압축을 거친 이후에도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16. 청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6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11%	8%	9%	19%	53%
언매	6%	6%	5%	13%	71%

- ① 최소가청강도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의 최솟값이다.  
→ 최소가청강도는 조용할 때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으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솟값이다.
- ②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와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이다.  
→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차폐음보다 낮은 주파수도 임계대역에 속할 수 있다.
- ③ 저음에서는 최소가청강도가 크므로 임계대역도 고음의 임계대역보다 넓다.  
→ 1,000Hz부터 10,000Hz 사이에서는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100Hz 이하의 저음에서는 훨씬 큰 소리여야 들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음의 최소가청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임계대역은 저음에서보다 고음에서 훨씬 넓다.
- ④ 임계대역 내에서 큰 소리로 인해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차폐라고 하며 차폐를 일으키는 '큰 소리'를 차폐음이라 한다.
- ⑤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면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 임계대역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해당 차폐음과 어떤 소리의 주파수 차이가 임계대역의 폭보다 크다면, 즉 '어떤 소리'가 임계대역을 벗어난 주파수의 소리라면 두 소리 사이에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17번	①	②	③	④	⑤
화각	9%	14%	17%	24%	36%
언매	7%	11%	12%	18%	53%

< 보 기 >

다음은 소리 A~D의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

소리	A	B	C	D
주파수(Hz)	150	1,000	1,500	2,000
소리 크기(dB)	30	30	63	55
최소가청강도(dB)	38	8	12	2
차폐 문턱값(dB)	38	20	38	6

찬우의 Pin Point

각 소리가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기 때문에 압축 과정에서 각 소리에는 서로 다른 비트가 할당될 수 있다. 차폐 문턱값을 넘지 못하는 소리는 제거될 것이고, 차폐 문턱값을 넘는다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많은 비트를 할당받게 될 것이다.

- ①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
- A는 차폐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가청강도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A를 들을 수 없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A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절하나요?

A: 우선 소리 A만 판단해 보자. 차폐는 큰 소리로 '인해' 작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원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작은 소리가 큰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을 때 차폐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A는 차폐 문턱값을 넘지 못하지만, 최소가청강도도 넘지 못한다. 즉 큰 소리와 관계없이 원래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소리 A 자체는 차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임계대역이란 차폐음의 주파수를 기준으로 차폐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높은 주파수 사이의 구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임계대역에서 차폐가 일어났다면 임계대역에 속하는 A 소리의 주파수 150Hz에서도 차폐가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차폐 문턱값이 최소가청강도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래야 150Hz에서 최소가청강도를 넘었지만 차폐 문턱값에 미달하는 신호가 존재할 때 차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50Hz에서는 최소가청강도와 차폐 문턱값이 같다. 즉 150Hz에서는 차폐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차폐가 일어났는데 임계대역에 속한 주파수 대역에서 차폐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므로, 해당 임계대역에서 차폐 현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은 현재 최소가청강도에서 다루는 '조용할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 뿐만 아니라 A가 포함된 임계대역 전체에서 현재 차폐가 일어날 수 없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났으므로 D를 들을 수 없겠군.
- D는 차폐 문턱값을 넘는 소리 크기를 가지므로, D를 들을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①번 선지와 마찬가지로,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 차폐가 일어났다는 것은 적절하나요?

A: D 소리에 해당하는 2,000Hz에서는 최소가청강도보다 차폐 문턱값이 높다. 그러므로 해당 주파수에서는 차폐음에 의해 차폐될 가능성이 있다. 차폐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D가 포함된 임계대역에서는 (물론 해당 임계대역에 속한 다른 소리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차폐가 일어났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차폐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에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 A와 B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기 때문에 소리 크기가 같다고 해서 압축할 때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윗글에 따르면 절대적인 소리 크기는 압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소리 크기가 차폐 문턱값을 넘는지, 그리고 차폐 문턱값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등을 바탕으로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정해진다.

→ A의 경우 들리지 않는 소리이므로 압축할 때 제거될 것이다. 즉 비트를 할당받지 못할 것이다. 반면 B는 차폐 문턱값을 넘는 소리이기 때문에 비트를 할당해서 저장해야 할 것이다.

④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은 같겠군.

→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지만, 차폐 문턱값과 임계대역의 폭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차폐 문턱값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이 같다고 판단할 수 없다.

→ 한편,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보기>의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고 했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이 같지 않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소리 C의 주파수가 더 높으니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이 더 넓다고 할 수 있을까요?

A: 소리 C와 소리 A가 차폐음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임계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영향을 받는데, 차폐음의 주파수가 고음일 때 훨씬 넓다. 그런데 <보기>에 따르면 A와 C가 서로 다른 임계대역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각 임계대역의 차폐음의 주파수는 확인할 수 없다. C가 A보다 더 고음이라고 해서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을 만드는 차폐음이 A가 포함된 임계대역을 만드는 차폐음보다 반드시 더 고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C의 주파수가 더 높다는 것을 근거로 C가 포함된 임계대역의 폭이 더 넓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 소리 C의 소리 크기 63dB와 차폐 문턱값 38dB의 차이는 25dB이다. 그리고 소리 D의 소리 크기 55dB와 차폐 문턱값 6dB의 차이는 49dB이다. 지각부호화를 통해 압축할 때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하므로,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될 것이다.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潰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에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 하고 분울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하에 무익하움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희하사 즉일 ㉠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희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찌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입하니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갇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톱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올 것이니 역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뗏어 둘러치고 역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달려 왈,

[A]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리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며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탐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자 미상, 「이화전」 -

상이 전라도 여산 고을로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潰亂)함을 들으시고 깊이 근심하사 유예 불평하시더니, 이화란 장사 있어 일찍 무과 급제하여 오래 벼슬을 못 하고 분울해하더니, 이 말을 듣고 상소하여 왈,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 성화에 무익하옵을 주야에 한이 깊삽더니, 이제 여산의 괴변이 고이하와 **본국이** 위태하오니,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

✓ ‘전라도 여산 고을’에 파견된 ‘원’마다 모두 죽어 고을이 황폐하고 인심이 혼란해지자, ‘상’은 근심에 빠지고 있다.  
 ✓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이화’는 상소를 올려 자신이 직접 ‘여산 고을’로 향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이화’는 일찍 무관 시험에 합격했으나,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 \* **상**: 1. ‘임금’의 높임말. [용례] 이런 일로 **상**께 글월까지 올려서 성심을 번거롭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2. 품절이나 등급을 나눌 때, 비교적 뛰어나고 좋은 부분. [용례] **상**으로 등급이 매겨진 집은 다섯 가호밖에 되지 않았다.
- \* **원**: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절도사, 관찰사,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 따위를 이른다. [용례] 잡세 받는 것은 그 고을 **원**이 가지고 순검들을 배설하여 민간에 작경이 없게 하고….
- \* **궤란**: 싸움에 패하여 흩어져 도망침. [용례] 아군의 기습으로 적은 **궤란**에 빠졌다.
- \* **상소하다**: 임금에게 글을 올린다. 주로 간관(諫官)이나 삼관(三館)의 관원이 임금에게 정사(政事)를 간하기 위하여 올렸다. [용례] 의정부와 궁내부 대신들이 연명하여 임금께 **상소**하기를 두 죄인에게 가유하여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다는 것이다.
- \* **급제하다**: 1.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하다.  
 2. 과거에 합격하다. [용례] 과거에 **급제**하다.
- \* **고이하다(괴이하다)**: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 [용례] 갑자기 어디선가 **괴이**한 신음 소리가 흘러나왔다.

상이 서사를 보시고 대희하사 즉일 ㉠ **여산 부사**를 제수하시자, 이화 대희하여 사은하고 집에 돌아오자, 가족이 대경하고 부모 왈,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 네 구태여 자원하여 죽으려 함은 어찌이뇨. 달리 말고 가지 말라.”

생이 대 왈,  
 “소자 듣자오니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  
 인하여 즉시 하직코 발행 나흘에 여산에 이르러 도임하니라.

✓ ‘이화’의 상소를 본 ‘상’은 크게 기뻐하며 곧바로 그에게 ‘여산 부사’의 자리를 내어 주고 있다.  
 ✓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못했던 한을 풀게 되어 기뻐하는 ‘이화’와 달리, 그의 부모님은 크게 놀라며 ‘여산’으로 떠나겠다는 그를 만류하고 있다.  
 → 그러나 ‘이화’는 악한 기운이 선한 기운을 범하지 못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바로 ‘여산’으로 향하고 있다.

- \* **제수하다**: 1.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다. [용례]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을 혹 상감께서 엿보신다면 가혹한 선비인저! 하시어 당장 예조 정랑쯤 **제수**하시고 싶은 심정이 되실지도 모르겠소이다만….  
 2. 옛 관직을 없애고 새 관직을 내리다. [용례] 박문수를 암행어사에 **제수**하다.
- \* **구태여**: 일부러 애써. [용례] **구태여** 가겠다는 이유가 뭐냐?
- \* **생**: 문어체에서, 말하는 이가 뒷사람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 [용례] **생**은 이곳서 곧장 고향에 돌아가기로 작정하였소. 형의 건투를 빌며 내내 안녕하시기를.

[중략 부분 줄거리] 이화는 아전 집의 자물쇠에 걸든 혼령인 여백에게 원을 죽인 정체가 누군지 물으나, 여백은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한다.

✓ ‘여산’에서 혼령 ‘여백’을 만난 ‘이화’는, 관리들을 죽인 것의 정체에 대해 물었지만, ‘여백’은 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  
 \* **아전**: 조선 시대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 속한 구실아치. 중앙 관서의 아전을 경아전(京衙前), 지방 관서의 아전을 외아전(外衙前)이라고 하였다. [용례] 사또라 하지만 어수룩한 서울 양반, 자칫 **아전**의 손에서 노는 경우가 많았다.

이화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니, 여백이 애걸하여 왈,  
 “네 나를 **베고자** 하니, 무릇 두 번 죽는 일이 없으나 불행히 너를 만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라. 내 말하나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이화 은근히 문 왈,  
 “좋은 피를 가르치면 어찌 성치 못하리오.”

여백 왈,  
 “저 은행나무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이 있어  
 변화 무궁하니, 이 고을 원마다 죽여 그 피 빨아 먹  
 으니 요술이 점점 더 신기한지라. 잡기를 착실히 할  
 지니, 이 고을 백성에게 명하여 만군으로 겹겹이 진  
 쳐 사람마다 다 활과 총과 창검을 장전하라 하고,  
 대툭과 큰 도끼로 나무를 베면 처음에 피가 낭자할  
 것이니, 이는 **잡귀**라. 나무 끝에 백발 노옹과 노파  
 나을 것이니 역만 병으로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

- ✓ 화가 난 ‘이화’가 ‘여백’을 칼로 위협하자, ‘여백’은 어  
 차피 자신이 ‘원’들을 죽인 것의 정체를 알려주더라도,  
 ‘이화’가 ‘처치를 잘못하면’ 큰 화를 입을 것이라며 애  
 곁하고 있다.
- ‘이화’는 그러면 ‘여백’이 ‘원’들을 죽인 것의 정체와  
 함께, 그것을 물리칠 ‘좋은 피’도 함께 알려주면 된  
 다고 답하고 있다.
- 이에 ‘여백’은 그간 ‘천여 년이나 묵은 여우 한 쌍’  
 이 ‘여산’에 ‘원’이 부임할 때마다 피를 빨아 먹고  
 힘을 키워왔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은행나무’를 베어서 그 끝에 나오는 ‘백발 노옹과  
 노파(여우 한 쌍)’을 한 번에 잡아내야 함을 알려주  
 고 있다.

- \* **낭자하다**: 1.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 [용례] 유혈이 사망에 **낭  
 자하다**.  
 2. 왈자지껄하고 시끄럽다. [용례] **낭자한** 웃음소리.
- \* **노옹**: 늙은 남자. [용례] 멀리 소나무 밑에서는 흰 수염을 단 **노  
 옹** 두 분이 바둑을 두고 있었다.
- \* **노파**: 늙은 여자. [용례] 허리가 구부러진 **노파**.



호그와트에 자주 출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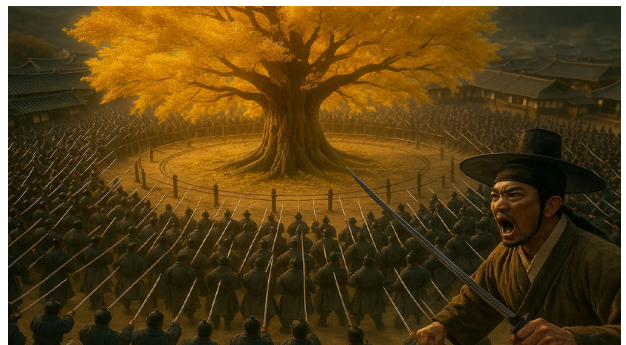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뚫어 둘러치고  
 역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  
 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  
 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  
 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  
 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 ✓ ‘이화’는 ‘여백’이 말한 대로 사람들을 시켜 ‘은행나무’  
 를 베려 하고 있다.
- ‘여산’의 관리와 백성들은 ‘백발 노옹과 노파’를 신  
 선으로 착각하여, 나무를 베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 그러자, ‘이화’는 자신의 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처벌  
 할 것이라며 나무를 벨 것을 재촉하고 있다.

- \* **영검(형)하다**: 사람의 기원대로 되는 신기한 징험이 있다. [용례]  
**영검하기** 신령 같다는 진령군의 푸닥거리도 별 무  
 효험이 되었다.
- \* **무궁하다**: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다. [용례] 귀사의 **무궁  
 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우야 여우야 현 집 줄게 새 집 다오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  
 이 터질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  
 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며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 ✓ ‘은행나무’를 베자, ‘여백’이 일러준 것처럼 그 속에 잡귀의 피가 가득하다.  
→ 이를 본 사람들이 놀라서 망설이자, ‘이화’는 다시금 그들을 꾸짖으며 나무를 베는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 \* **실색**: 놀라서 얼굴빛이 달라짐.
- \* **창황하다**: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용례] 사랑하는 사람을 평시도 아니요 **창황한** 난리 통에 기다리기관 참으로 애가 마르는 듯하다.
- \* **추상**: 가을의 찬 서리.
- \* **제군**: 통솔자나 지도자가 여러 명의 아랫사람을 문어적으로 조급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용례] 학생 **제군**.



고로쇠 물 받으시다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둡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백성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함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매 길이 한 발이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 ✓ ‘이화’의 지시대로 나무를 계속 베어내자,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등장하여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고함을 질러대고 있다.  
→ 이에 사람들은 모두 고꾸라지고 있다.

- ✓ ‘이화’의 고성에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나무를 베어내니, ‘요괴 둘(백발 노옹과 노파)’이 한 발 정도 되는 크기의 ‘금빛 같은 여우’의 모습으로 떨어졌다.

- \* **발**: 1. 길이의 단위. 한 발은 두 팔을 양옆으로 펴서 벌렸을 때 한쪽 손끝에서 다른 쪽 손끝까지의 길이이다. [용례] 열두 발 상모.  
2. ((주로 ‘새끼’ 따위의 뒤에 쓰여)) 약간의 그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용례] 잠깐 사이에 새끼 **발**이나 꼬았다.



한의사들이 잔뜩 몰려왔다

화살과 창검으로 ㉠ 그 짐승을 죽임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 작가 미상, 「이화전」 -

- ✓ ‘금빛 같은 여우’를 죽인 사람들은 ‘이화’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 ✓ 그러나 죽은 것은 수컷뿐이라는 보고를 들은 ‘이화’는 몹시 놀라 하얗게 질리고 있다.  
→ 앞서 ‘여백’은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야만 변이 없을 것이라 했다.  
→ 그러나 ‘수여우’밖에 잡지 못하였으니, 문제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 \* **대경실색**: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용례] 노파는 어머니의 부어오른 손목을 보더니 **대경실색**을 하면서 당장 장안의 용한 침쟁이들을 줄줄이 엮어 댔지만...



암여우 : 凸

18.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3%	5%	6%	6%	77%
언매	2%	3%	4%	3%	86%

- ① 이화는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해칠 수 없다고 여기고 여산에 부임했다.  
 → ‘이화’는 ‘여산’으로 가는 자신을 말리는 부모에게 “사악한 기운이 바른 기운을 범하지 못한다 하오니 과려치 마소서.”라며 걱정을 뒤로 하고 즉시 ‘여산에 이르러 도입하’고 있다.

\* 부임하다: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다. [용례] 나는 김 선생보다 1년 먼저 이 학교에 부임하였다.

- ② 이화는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했다.  
 → 이화가 나무를 베라고 명령하자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이화를 말린다. 이에 이화는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라고 말하면서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고 호령한다. 이를 통해 이화가 모든 관리와 백성이 자신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고 나무라며 자신의 뜻을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모든 군사는 이화의 호령하는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행동했다.  
 → ‘여백’이 알려준 것과 달리, 마을의 관리와 백성들은 ‘은행나무’에 나오는 ‘백말 노옹과 노파’를 신선으로 알아, ‘이화’가 나무를 베려 하는 것을 말리고 있다. 이에 ‘이화’가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라며 호령하자,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이화’가 요구하는 대로 나무에 ‘일시에 달려들어 베’고 있다.

- ④ 모든 군사는 은행나무 속의 유혈을 보고 당황하여 이화에게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했다.  
 → 모든 군사가 ‘이화’의 요구대로 ‘은행나무’를 베니, ‘여백’이 알려준 대로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였다. 이를 본 모든 군사들은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이화’에게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라며 나무를 베라는 명령을 거둘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⑤ 이화는 백말 노옹과 노파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고향을 치며 나무를 베었다.

→ ‘은행나무’를 베던 중, 나무 위에 나타난 ‘백발 노옹과 노파’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성안의 계관이 다 거꾸러’졌다. 한편, 겨우 정신을 차린 ‘이화’가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저 요괴를 잡으라.”라며 고향을 질러 명령한 것을 들은 ‘모든 군사와 백성’들은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향하고 나무를 베’고 있다. 즉, ‘백발 노옹과 노파’가 지르르는 소리를 듣고 고향을 치며 나무를 베는 것은, ‘이화’가 아니라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다.

19.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번					
	㉠	㉡	㉢	㉣	㉤
화자	76%	5%	9%	6%	1%
언매	88%	2%	4%	3%	0%

- ㉠ 여산 부사를 제수    ㉡ 각 면에 하령
- ㉢ 그 짐승을 죽임

① 이화는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을 통해 해소하고,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을 통해 시도한다.

→ ‘전라도 여산 고을’에 파견된 ‘원’들이 모두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화’는 ‘상(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신이 이제 급제하여 십여 년에 벼슬을 못 하옵고”라며 그동안 벼슬을 못 했던 울분을 드러내고,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입거하와 사변을 제어하오리다.”라며 자신이 ‘전라도 여산 고을’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상소를 본 ‘상’은 ‘이화’에게 즉시 ㉠하여 그를 ‘여산’으로 보내고 있다. 이처럼 벼슬을 하지 못해 생겼던 ‘이화’의 울분은 ㉠을 통해 해소되고 있다.

→ ‘여산’으로 향한 ‘이화’는 혼령 ‘여백’을 만나 ‘여산’의 ‘원’들이 연달아 죽었던 이유와 해결 방법을 듣는다. 이후, ‘이화’는 ㉡을 통해 ‘여백’이 알려준 대로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라고 명하고 있다. 이처럼 ‘이화’는 ㉡을 통해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② 상은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을 행하고, 이화는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되찾고자 ㉡을 행한다.

→ ‘상’은 ‘전라도 여산 고을’에 부임한 ‘원’마다 모두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棼亂)함을’ 듣고 깊이 근심하던 중, 이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이화’의 상소를 받고 ㉠을 통해 ‘이화’를 ‘여산’으로 보내고 있다. 이처럼 ㉠은 ‘상’이 황폐한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행한 방법이다.

→ ‘여산’으로 향한 ‘이화’는 혼령 ‘여백’을 만나 ‘여산’의 ‘원’들이 연달아 죽었던 이유와 해결 방법을 듣는다. 이후, ‘이화’는 ㉡을 통해 ‘여백’이 알려준 대로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라고 명하고 있다. 이처럼 ㉡은 ‘이화’가 ‘여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한 것이지, 자신에 대한 백성의 신임을 되찾고자 행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윗글을 통해 ‘이화’가 백성들의 신임을 잃었다는 대목 역시 확인할 수 없다.

- ③ 이화의 부모에게 ㉠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이화에게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 ㉠을 통해 ‘여산’에 가게 된 ‘이화’에게, 부모는 “여산 가는 원마다 죽는 자 삼십여 인이라.”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은 부모가 ‘이화’의 안위를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여백’이 일러준 대로 ‘이화’는 ‘여산’의 사람들에게 ‘은행나무’를 베고, 거기서 떨어진 ‘그 짐승(금빛 같은 여우)’를 죽이게 했다. 처음에는 ‘은행나무’에 신선이 깃들었다고 착각하여 ‘이화’에게 반대했던 마을 사람들은, ㉡을 통해 사실 ‘이화’가 말한 대로 나무 속에 요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라며 ‘이화’를 칭송하고 있다. 이처럼 ㉡은 백성들이 ‘이화’를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은 ‘상’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군사들은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게 되고, 백성은 ㉣을 근거로 하여 이화를 신뢰하게 된다.
- ‘여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화’는 ‘여백’의 말대로 ㉢을 통해 군사들에게 나무를 베라 명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화’의 명에 ‘모든 관리와 백성’이 말렸지만, ‘이화’의 호령으로 ‘모든 군사’들은 ㉢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을 계기로 ‘이화’는 ‘원’이 죽은 원인인 ‘요괴(천여 년 묵은 여우)’를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뒷글에서 군사들이 ㉣을 계기로 ‘이화’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다.
- ㉣을 통해 사실 ‘이화’가 말한 대로 나무 속에 요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은,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라며 ‘이화’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은 ‘여산’의 백성들이 ‘이화’를 신뢰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다.
- ⑤ 이화는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을 행하고, ㉥을 통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한다.
- ㉤은 ‘이화’가 ‘여산’에 부임한 ‘원’들이 연달아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백성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 ㉥은 ‘이화’가 ‘여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성들과 행한 것으로,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또한 뒷글에서 ‘이화’ 및 백성들이 관리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2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3%	89%	3%	2%	1%
언매	1%	94%	1%	1%	0%

[A]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 ① [A]에서는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이 사실로 증명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 [A]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은 ‘은행나무’를 베라고 하는 ‘이화’를 말리고 있다. 한편, 이는 ‘은행나무’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말한 것일 뿐, 이러한 믿음이 사실과 일치함을 ‘이화’에게 전한 것은 아니다.
- [B]에서 ‘모든 군사와 백성’은 그동안 ‘여산’에 부임한 ‘원’들이 모두 죽은 까닭이 ‘은행나무’에 있던 ‘요괴’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이화’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드러나듯, ‘모든 군사와 백성’은 처음에는 ‘이화’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를 말렸다.
- ② [A]에서는 상황을 가정하여 대상이 자신들과 상대방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B]에서는 상대방으로 인해 변화된 상황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 [A]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은 ‘이화’가 베라고 명한 ‘나무’ 위에는 ‘신선’이 있어 극히 영험하므로, 만약 ‘나무’를 베다면 백성이 다 죽고 ‘성주(이화)’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다며 그를 말리고 있다.
- [B]에서 ‘모든 군사와 백성’은 그동안 ‘여산’에 발생했던 문제가 ‘나무’ 위에 있던 ‘요괴’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이화’ 덕분에 문제가 해결되어 ‘이제는 태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 변화를, [B]에서는 자신들과 상대방이 공유한 경험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 [A]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때때로 나’온다며 자신들이 목격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신선’이 나오는 ‘극히 영험’한 ‘나무’를 벤다면 백성뿐만 아니라 ‘이화’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라며, 나무를 베라는 그의 명령을 만류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는 목격한 상황을 토대로 ‘나무’에 대한 ‘이화’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B]에서 ‘모든 군사와 백성’은 ‘이화’와 함께 ‘요괴’를 처치한 경험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화’를 인정하고 사례하고 있다. 한편, ‘이화’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여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상대방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A]에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바람직한 상황을 가져온 업적을 예찬하고 있지도 않다.
  - [B]에서 ‘모든 군사와 백성’은 ‘커다란 변란이 있’던 ‘종전(이전)’과 달리, ‘요괴’를 죽인 지금은 ‘태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이화’ 덕분이라며, 그의 업적을 예찬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의 지위를 언급하며 상대방이 스스로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
  - [A]와 [B]에서는 상대방 ‘이화’를 그의 지위인 ‘성주’로 부르고 있다.
  - [A]에서 ‘모든 관리와 백성’은 ‘이화’가 베라고 명한 ‘나무’ 위에는 ‘신선’이 있어 극히 영험하므로, 만약 ‘나무’를 벤다면 백성이 다 죽고 ‘성주(이화)’에게도 화가 미칠 수 있다며 그를 말리고 있다. 이때 ‘이화’의 지위를 언급한 것은, 그가 ‘성주’로서 자신의 역할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B]에서 ‘모든 군사와 백성’은 ‘이화’의 명령 덕분에 ‘태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사례하고 있을 뿐, 그에게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1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3%	6%	6%	9%	74%
언매	2%	3%	4%	5%	84%

— < 보 기 > —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서사는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 2017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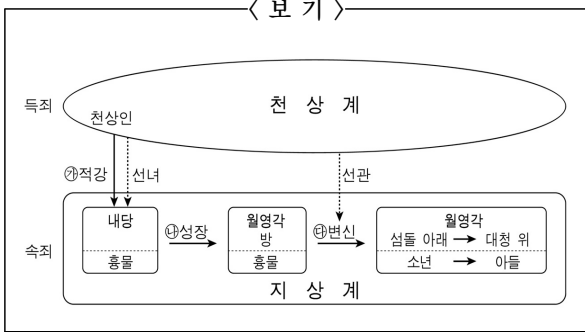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 보 기 > —

고전 소설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교섭을 통해 신성성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한 미학적 원리로 삼는다.** 고전 소설은 초월계가 천상에 존재한다고 하면서도, 그 공간을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수직적 사고의 소산이며, 초월계를 현실 세계의 연장으로 설정하는 것은 수평적 사고에 해당한다.

# 2011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전라도 여산 고을 간 원마다 죽고 고을이 황폐하여 인심이 궤란(潰亂)함에 근심하던 ‘상’에게, ‘이화’는 상소를 올려 자신이 직접 ‘여산’으로 가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이화’의 모습은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위기 해결에 나서는 것에 해당한다.
-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게 ‘좋은 껍’을 알려주는 여백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이화’는 자물쇠에 갇든 혼령 ‘여백’에게 ‘여산’에 부임한 ‘원’들을 죽인 정체에 대해 물었지만, ‘여백’이 답하지 않자 ‘매우 노하여 여백을 칼로 당당히 베고자 하’며 위협하고 있다. 이에 ‘여백’은 자신이 ‘원’들을 죽인 것의 정체를 말하더라도, ‘이화’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질 것이라며 애걸하고 있다. ‘이화’는 그러면 ‘여백’이 ‘원’들을 죽인 것의 정체와 함께, 그것을 물리칠 ‘좋은 껍’도 함께 알려주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여백’의 모습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는 달리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한다.
- ③ ‘잡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여백’은 ‘이화’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여산’에 부임한 ‘원’들을 죽인 ‘요괴’를 잡는 것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나무를 베면 ‘잡귀’를 잡

아 ‘피가 낭자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 ‘이화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여백’은 ‘자물쇠에 갇든 혼령’, 즉 초현실적 존재다.

→ <보기>에 따르면, 인간인 ‘이화’와 혼령인 ‘여백’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의 특징이 드러난다.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 ‘이화’는 ‘자물쇠에 갇든 혼령’인 ‘여백’으로부터 ‘여우를 잡’는 방법을 들었다. 그에 따라 ‘이화’는 ‘여산’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힘을 통해 ‘여우’를 잡고 있다. 이처럼 주인공 ‘이화’는 조력자 ‘여백’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고 있지 못하다.

→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주인공 ‘이화’의 모습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에 해당한다.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 ‘이화’는 혼령 ‘여백’으로부터 ‘여산’에 부임한 ‘원’들을 죽인 것의 정체(천여 년 묵은 여우 한 쌍)와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껍’에 대한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따라 ‘수여우’를 잡을 수 있었다. 한편, ‘여백’은 ‘이화’에게 “네가 처치를 잘못하면 나는 예 있지 아니하고 너는 목이 베어지리라.”, “여우를 잡되 일시에 둘을 다 잡아내면 변이 없으리라.”라고 말했다. 따라서 ‘수여우’만 잡은 상황은 ‘이화’가 ‘처치를 잘못하여 ‘목이 베어’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승배자였다.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간하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 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따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邵子)는 ‘베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흥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가)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 ✓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이라는 대목을 통해 ‘유자나무’이 유자나무임을 추론할 수 있다.
- ✓ 화자는 유자나무와 굴나무가 있는 **꺾을** ‘지순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세계의 자아화**

\* **지순하다**: 더할 수 없이 순결하다. **용례** 지순한 사랑.

길에는 자갈이 빗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쁜 나의  
신발(겨우 무거운 짚의 짚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  
**운 경사감**.

- ✓ **꺾**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제목의 ‘경사’는 비스듬히 기울어진 상태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화자는 내리막길에서 ‘발바닥에 느껴지는 경사감’을 느끼고 있다.
- ✓ ‘겨우 무거운 짚의 짚은 구두’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고된 짚은 시절을 보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힘들었던 짚은 시절을 지나온 화자는, 이제는 ‘가뿐’하다고 느끼고 있다.  
→ 화자는 이를 ‘(짚의) 구두를 벗’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 ✓ 이처럼 내리막길 위에 올라선 화자가 지나간 짚은 시절을 떠올리는 것에서, **꺾**을 자신의 인생에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까지 화자가 걸어왔을 오르막길은 화자의 고됐던 짚은 시절을, 내리막길은 겨우 힘들었던 시기에서 벗어난 현재를 의미한다고 감상할 수 있다.  
→ 그렇기에 화자는 내리막길에서 느껴지는 ‘경사감’을 ‘신비스럽다’고 인식하고 있다.

\* **겨우**: 1. 어렵게 힘들여. **용례** 시험에 겨우 합격하다.  
2. 기껏해야 고작. **용례** 네 실력이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니?

\* **신비스럽다**: 보기에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하고 묘한 데가 있다. **용례** 그때 경험한 그 일은 아직도 신비스러운 일로 기억된다.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  
**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 ✓ 고된 오르막길을 올라오며 내리막길에 다다를수록 점점 ‘시야가 열리’고, 수평선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 ‘신비스러운 수평’ 모두 수평선을 의미한다.

\* **심오하다**: 사상이나 이론 따위가 깊이가 있고 오묘하다. **용례** 심오한 진리.

- \* **수평선**: 1. 물과 하늘이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선. **용례**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고 있다.  
2. 중력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선.  
3. 수평면 위에 있는 직선. **용례** 직각이 되게 수평선을 긋다.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쁜한 나의 신발.

- ✓ 첫 연과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고 있다.  
→ 처음에는 **꺠**을 '지순'하다고 여겼던 화자는, 이제는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재인식**

\* **당연하다**: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하다. **용례**  
언니가 동생을 근심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 박목월, 「경사」 -

- ✓ '**꺠**' = 인생'의 맥락에서,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감상할 수 있다.  
→ 힘들었던 젊은 시절(오르막길)을 겨우 지나 황혼기(내리막길)에 접어든 화자이기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기우는 세계)이 신비롭게 느껴지고, 또 그로 인해 설레는 화자다.  
→ 이러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오오'라는 감탄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연탄**

# 2018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선뜻! 뜨인 눈에 하나 차는 영창  
달이 이제 밀물처럼 밀려오다.  
미욱한 잠과 베개를 벗어나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간다.  
한밤에 홀로 보는 나의 마당은  
호수같이 등긋이 차고 넘치노나.

- 정지용, 「달」 -

본격적으로 **(나)** 이수익, 「달빛 체질」을 감상하기에 앞서, 과거 기출을 경험해보자.

**1연**에서 눈을 감고 있던 화자는 영창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이 '밀물처럼 밀려'온다는 것은 그만큼 밝은 달빛이 압도적으로 느껴진다는 의미다.

**2연**에서 화자가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간다'는 것은 달빛이 그만큼 매력적이고 매혹적이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지향**

**3연**의 '차고 넘치노나'에서 화자는 감탄형 어미를 통해 달빛이 비치는 마당으로부터 느껴지는 충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 **연탄**

# 2026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낮에도 텅— 비었던 길,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다. 달빛만이 꼭— 차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쇠— 쇠— 하고 흠어지는 것 같다.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도, 철로 위에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도, 달은 또한 큰 바다이다. 이 달의 바다 아래에선 물의 바다는 너무나 조그맣구나! 그리고 달의 바다는 너무나 성스럽구나!

- 이태준, 「해촌 일지」 -

정지용, 「달」의 1연과 비슷한 심상을 경험한 바 있다.



달이 근지점에 있음에 틀림없다

# 2013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나직하고 힘찬 목소리가 가락에 툇 걸쳐서는 이 싸늘하고 구죽죽한 저자를 따뜻하게 덮히는 것만 같았다. 나만 일어섰는가? 아니다. 내가 뒤가 급해진 느낌으로 안달을 온몸에 신고서 다리 위로 올라갔을 때에, 저자의 술집 창문마다 가게 빈지문마다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꺠집어내어지는 것이었다.**

- 황석영, 「가객」 -

「달」의 2연에서 '부르는 이 없이 불려 나간다'와 유사한 구절 역시 경험한 바 있다.

윗글은 「가객」의 일부분이다. 해당 대목에서는 사람들의 '가객'이 만들어내는 가락(소리)을 들은 '나'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① 가락이 '저자를 따뜻하게 덮히는 것만 같았다'는 것은, '가객'의 가락이 저잣거리(시장)에 생기를 불어 일으켰다는 의미다.

- ② '사람들의 머리가 하나 둘씩 꼬집어내어지는 것이었다.'라는 구절은 술집 안에서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 정도로 '가객'의 소리가 매혹적이라는 의미다.



충만감이 느껴지는군

(나)

내 조상은 뜨겁고 부신  
태양 체질이 아니었다. 내 조상은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달의 승배자였다.

- ✓ 태양과 달의 속성이 대비되고 있다.  
→ 뜨겁고 부신 태양과 달리, 달은 아늑하고 조용하다.
- ✓ 화자의 조상은 태양보다는 달을 승배(⇒ 지향)했다.

\* 뒤안(뒤결): 집 뒤에 있는 뜰이나 마당. [용례] 집 뒤결에는 깊은 우물이 있다.

\* 승배하다: 1. 우러러 공경하다. [용례] 나는 여러분의 높은 정신을 승배하고 싶다.  
2. 신이나 부처 따위의 종교적 대상을 우러러 신앙하다.



이번 여름이 생각나는군



난 소맥, 아니 달빛 체질♥

그는 달빛 그림자를 밟고 뛰어놀았으며  
밝은 달빛 머리에 받아 글을 읽고  
자라서는, 먼 장터에서  
달빛과 더불어 집으로 돌아왔다.

- ✓ 화자의 조상은 늘 달과 더불어 살았다. ⇨ 함께, 연대, 유대, 조화  
→ 화자의 조상은 달과 정서적, 심리적 거리가 가깝고 (친밀감 ↑), 달과 교감하는 삶을 살았다.

낮은  
이 포근한 그리움  
이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 ✓ (대상의) 부재 + 생각 = 그리움
- ✓ 조상은 달을 지향하는 사람이었다.  
→ 따라서 달이 보이지 않는 낮은, 조상에게 있어 크나큰 기쁨(달)과 다시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다.

일생이 달의 자장(磁場) 속에  
감히기를 원했던 내 조상의 달빛 체질은  
지금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 ✓ 일생을 달과 함께 하기를 소망했던 조상의 '달빛 체질'은 화자의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 화자도 자신의 조상을 닮아 달을 지향한다는 의미다.  
→ 이러한 면에서 화자와 조상은 동일시되고 있다.

\* **자장**: 자석의 주위, 전류의 주위, 지구의 표면 마위와 같이 자기  
의 작용이 미치는 공간.

밤하늘 떠오르는 달만 보면  
 웬지 가슴이 멍해져서  
 끝없이 야행(夜行)의 길을 더듬고 싶은 나는

아, 그것은 모체의 태반처럼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引力)이 바닷물을 끌듯이.  
 - 이수익, 「달빛 체질」 -

- ✓ 마치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고, 태아와 어머니가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화자는 달이 자신과 연결되어 멀리서도 끌어 당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 그만큼 화자는 달에 강렬하게 이끌리고 있다.  
 → 이를 화자는 조상의 ‘달빛 체질’이 자신의 피에도 흐르고 있다고 표현한 것이다. ⇨ **지향**

\* **태반**: 임신 중 태아와 모체의 자궁을 연결하는 기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배설물을 내보내는 기능을 한다.  
 \* **인력**: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 사이나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며, 핵력 때문에 소립자들 사이에서도 생긴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 〉

「자화상(自畫像)」은 1941년 「문우(文友)」에는 ‘우물 속의 자상화(自像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이 제목에서는 ‘우물’과 ‘그림’이 부각되어 있다. 상징적 관점에서 볼 때, 우물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는 사물이고,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이며, 그 동굴의 원형인 **모태(母胎)**를 떠올리게 하는 공간이다. 이 점에서 보면, 이 시에서 우물 속의 자상화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다층적으로 담아 내고 있는 그림이다.

‘모태’는 어머니의 태 안(자궁)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사물의 발생 혹은 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 2025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 나의 **태반**으로 돌아  
 왔으나

-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



자칫 잘못하면 인력에 끌려가게 생김

(다)

천지 만물에는 큼이 있고 작음이 있다. 큼과 작음은 사물의 형태이다.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작으면 서도 크고 크면서도 작은 이치가 또한 없지 아니하다.

- ✓ 사물 자체의 크고 작음(⇨ 형태)은 고정되어 있다.
- ✓ 그러나 사물을 인식하는 주체의 내면세계에 따라, 사물의 크고 작음은 달라질 수 있다.  
 → 절대적인 크기와 상관없이, 주체가 이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할 수도, 큰 것을 작게 생각할 수도 있다.  
 → 결국 사물의 크고 작음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작은 것이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인데, 그것에서 표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사물은 작음에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이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인데, 성인(聖人)은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물에는 **크고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이 어떠한지에 달린 것일 뿐이다.

- ✓ 글쓴이(필자)는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사물의 크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부연하고 있다.
  - ‘사물은 작는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크게 여기는 것’의 예시로, ‘대나무 도시락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이라는 작은 사물을 귀하게 여겨 ‘(기쁜)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 한편,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작게 여기는 것’의 예시로,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자신에게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성인(聖人)’을 언급하고 있다.

우 상사 사양(禹上舍士仰)은 약봉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산다. 집터가 몇 이랑도 되지 않고 따로 지붕을 이었으니, 집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래도 사양은 그 집을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을 ‘용연사(容燕舍)’라고 명명하였다. 그 집이 제비 등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이다. 사양이 언젠가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웃으며 말해 주었다.

- ✓ ‘사양’의 집은 너무 작아서 ‘용연사(容燕舍, 제비 등지를 겨우 수용할 수 있는 집)’라는 이름을 붙였다.
- ✓ ‘사양’이 자신의 집을 작다고 여기는 기색을 보이자, 글쓴이(필자)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다.
  - 앞서 글쓴이(필자)가 설명한 ‘사물의 크고 작음은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 \* **이랑**: 1. 논이나 밭을 갈아 골을 타서 두두룩하게 흙을 쌓아 만든 곳. 물갈이에는 두 거웃이 한 두둑이고 마른갈이나 밭에서는 네 거웃이 한 두둑이다. **[용례]** 이랑이 만들어지길 기다려 갖가지의 씨앗을 뿌린다. 조를 뿌리기도 했다.
- 2. 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이랑이 길다.
- 3. 물결처럼 줄줄이 오목하고 볼록하게 이루는 모양을 이르는 말. 또는 이런 모양에서 볼록한 줄을 오목한 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용례]** 갈댓잎이 살랑대며 불을 스쳐 갔다. 언덕 아래로 갈대의 **이랑**을 만들면서 흐린 달빛이 출렁여 갔다. 언덕은 흡사 꿈틀거리는 우람한 짐승의 등허리 같았다.
- 4. 「2」를 세는 단위. **[용례]** 한 이랑.



전세 사는 우리집의 현실

“군(君)의 집은 정말 작네. 하지만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니, 군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일세. 저 집이 이미 군을 수용하고, 그 남은 공간에 다시 군의 처와 자식을 수용하며, 뜰에는 국화를 많이 심어 매년 가을이면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고**, 처마 밖에는 종남산 일대가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네**. 집이 이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니, 군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네.

- ✓ ‘사양’의 집(용연사)은 절대적인 크기는 작지만, ‘사양’본인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작게 느껴질 수도,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
  - 글쓴이(필자)는 집이 ‘사양’과 그의 처자식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가을에 국화의 향기와 빛깔이 뜰에 모이고, 아침저녁으로 푸르른 산빛이 처마 밖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들어, ‘용연사’가 수용하는 것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 **사양하다**: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다. 또는 남에게 양보하다. **[용례]** 벼슬을 사양하다.



꽃

하지만 이것은 모두 외면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라네. ㉔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군에게 몸을 주재하는 것은 마음이 아닌가. 마음의 자리는 사방 한 치일 뿐이니, 비록 지극히 작은 사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네. 하지만 한량이 없고 방향이 없는 마음으로서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천지 사이에 가득하게 된다네. 그래서 소자(鄒子)는 '배 이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명아주 국으로 배를 불리고 나서 흉중의 기를 토해 내니 우주에 가득하도다.'라고 하였지. 안락한 오두막 하나가 천지 사이의 커다란 구역이 된다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 ✓ 한편, 앞서 글쓴이(필자)가 언급한 것('용연사'를 채우는 것)은 외부의 것이지 내면이 아니다.
  - 이에 글쓴이(필자)는 '사양'에게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있다.
- ✓ 비록 마음의 자리는 아주 작지만, '의로운 행동을 쌓아 생기는 것을 병졸로 삼아 제대로 기르면(⇒ 수양) 세상 에 가득하게 된다.
  - 글쓴이(필자)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박한 생활 속에서도 심신을 수양하면, 온 우주를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소자(鄒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 그러나 '사양'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 **치**: 길이의 단위. 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 또는 약 3.03cm에 해당한다. [용례] 세 치 혀도 잘못 놀리면 큰 망신을 당한다.  
 \* **한량**: 한정된 분량. [용례] 그들의 기쁨은 한량이 없었다.  
 \* **배**: 1. 삼실, 무명실, 명주실 따위로 짠 피륙. [용례] 배를 짜다.  
 2. 삼실로 짠 천. [용례] 배 한 필.

# 2024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히 생각하였지만, 이미 그 속에 가 있었기에 의리를 의욕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상사공의 힘으로 수십 묶음을 얻어 햇빛에 말려 보관할 수 있었으니,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였다.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오자 멍하기가 마치 술에서 막 깨어난 사람이 잔뜩 취했을 때를 되짚어 생각하는 듯하였다.

- 김낙행, 「기취서행」 -

유교적 이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의리'는 고전 작품의 주제로 자주 활용된다.

㉔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수용한 것의 근본을 바탕으로 정진한다면 집이 그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음이 없을 것이네.  
 - 채제공, 「용연사기」 -

- ✓ '집'은 '몸'을 수용하고, '몸'은 '마음'을 수용한다. 또한 '마음'은 천지 사이에 가득한 유교적 이념을 수용한다.
  - 수용한 것의 근본(⇒ 유교적 신념, 의)을 바탕으로 수양에 정진한다면, '용연사'와 같이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담는 참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렇기에 사물의 크고 작음은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 가짐에 달려 있다. ⇨ **주제 의식, 교훈**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5%	4%	5%	81%	1%
언매	2%	2%	2%	92%	0%

-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면 여운(감정의 지속)이 남는다(⇒ 내면세계 강조). 그 이유는 문장의 최소 단위가 주어 + 서술어인데, 서술어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서술어의 자리까지 주어의 의미 혹은 감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 (가)는 2, 3, 4연에서 각각 ‘경사감’, ‘거리감’, ‘신발’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경사진 길을 걸으며 인식하는 풍경과 관련한 화자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소망을 이루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나)에는 의인화된 대상이 나오지 않으며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 역시 나오지 않는다.
-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다)는 ‘용연사’의 규모에 대한 글쓴이(필자)와 ‘사양’의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용연사’가 작다고 여기는 ‘사양’에게 글쓴이(필자)는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는 큰 것이니, 군(사양)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 글쓴이(필자)는 크고 작음과 같은 사물의 구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인식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글쓴이(필자)는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가)는 1연과 4연에서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고 굴나무에는 굴이 열리는 이 -한 길은 바다로 기울-’이라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두 연의 차이점은 ‘길’에 대한 수식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연에서는 ‘지순한 길’이라는 표현이 4연에서는 ‘당연한 길’이라 변주되고 있다. 또한 1연과 달리, 4연에서는 ‘가뿐한 나의 신발’이라는 시어를 덧붙이며 연을 마무리하고 있

- 다. (가)에서 화자가 걷는 ‘길’이 인생에 비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4연에서의 변주는 무겁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지나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가 자신의 노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화자의 내면세계를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나)는 ‘달’과 ‘달빛’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달의 승배자’, ‘달빛 체질’이라 이를 정도로 ‘달’을 지향했던 ‘조상’을 닮아, 지극히도 ‘달’을 사랑하는 화자의 내면세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가)는 ‘오오 기우는 세계여’에서 ‘오오’라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내리막길에서 느껴지는 ‘신비스러운 경사감’과 주변에 펼쳐진 풍경에 대해 감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나)는 ‘아, 그것은 ~ 나를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에서 감탄사 ‘아’를 활용하여 화자가 그만큼 ‘달’에 강렬하게 이끌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다)는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2%	3%	82%	5%	6%
언매	1%	1%	91%	2%	3%

-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승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2연과 4연에서, ‘달의 승배자’로서의 ‘조상’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2연에서 ‘조상’은 유년 시절부터 ‘달’과 더불어 살아왔다. 또한 4연에 따르면, ‘조상’은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2연과 4연의 내용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승배자’라고 여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4연에서 ‘달빛 체질’은 ‘일생이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던’ 조상의 성격을 의미한다. 또한 화자는 ‘달빛 체질’이 자신의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고 말하며, ‘달’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조상’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
-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떼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6연에서 화자는 ‘그것(달)’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와 어머니가 탯줄로 연결된 것처럼, 화자와 연결된 ‘달’이 멀리서도 자신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인식을 통해 ‘달’과의 거리감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와는 무관하게 ‘달’에 강하게 이끌리고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2연과 3연에서는 함께하는 대상(달)에 대한 ‘그(조상)’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향이 드러나고 있다. 2연을 통해 유년 시절부터 ‘달’과 더불어 살아온 ‘조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3연을 통해 ‘조상’에게 ‘달’은 ‘크나큰 기쁨’이었으며, ‘달’이 보이지 않는 ‘낮’은 ‘그’에게 그저 밤을 기다리는 ‘힘겨운 과정일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이처럼 ‘달’을 지향하는 ‘조상’이 ‘달빛 체질’이라고 하고, 그 체질이 지금 자신의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고 한다. 즉, 화자는 ‘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신과 ‘조상’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6연에서 화자가 ‘달’이 ‘멀리서도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조상’이 ‘달’을 긍정하고 지향했던 것처럼 자신도 ‘달’에게 강하게 이끌리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4연의 ‘조상’은 ‘달의 자장 속에 갇히기를 원했’을 정도로 ‘달’에 강하게 이끌리는 ‘달빛 체질’이었으며, 이는 지금 화자의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다’. 6연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력이 바닷물을 끌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조상처럼 ‘달빛 체질’인 화자와 ‘달(의 자장)’이 맺고 있는 관계가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인력’처럼 강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4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5%	7%	6%	14%	65%
언매	3%	5%	4%	10%	76%

< 보 기 >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이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 기 >

시나리오에서는 장면(scene)과 장면을 연계할 때, 이야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 요소**를 상징한다. 매개 요소란 장면 A의 말미와 다음 장면 B의 서두를 이어 주는 '형식 고리'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매개 요소는 두 장면 사이의 공통성이나 대립성을 활용한다.** 공통성과 대립성은 인물의 성격, 연기(행), 대사, 빛과 음향, 분위기 등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서로 다른 장면(소재)은 장면 간의 공통성과 대립성(⇒ 매개 요소)을 활용하여 연결·결합·통합된다. 또한 이렇게 장면이 연결되면,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진다.

# 2010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보기1>



- 스탠리 큐브릭 감독,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

□4 이전까지 등장한 동물 뼈는 원시인이 사냥에 성공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데 사용한 도구이다. □4의 우주선은 인간이 지구 외부의 세계로 진출하는 데 사용한 도구이므로, 뼈와 우주선이 **결합**되면 '도구의 사용'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도출된다.

# 2010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형태를 본떠서 재현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재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휴식'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은 **상형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때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회의 문자다. 회의 문자 'של 휴(休)'는 '사람 인(人)'과 '나무 목(木)'이 **결합된 문자**다. 이 두 문자를 결합하면 '휴식'이라는 추상적 의미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휴식'이란 말의 의미는 '人'에도 '木'에도 들어 있지 않다.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되면서 두 문자의 단순한 총합이 아닌 새로운 차원이 열리며,**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에이젠슈타인이 회의 문자에서 주목한 지점이다.

# 2015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A·B)

S#98. 강독 위 (오후,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 후) E.L.S.

진우 증조부: (손에 권 종이를 움켜쥐고 부르르 떨며)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거다!**

S#99. 나루터 선술집 (저녁)

진우 할아버지: (입술을 깨물었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이)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거다!**

⑤ S#98~99에서 **역올한 상황이 되풀이됨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한 특정 대사를** 구사하도록 해야겠어.

동일한 특정 대사를 반복하여 S#98.(과거)과 S#99.(현재)를 **연결함**으로써 '역올한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전달하고 있다.

# 2015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A)

< 보기 >

**장면(scene)**은 시나리오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동을 뜻한다. **장면**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이 변할 때 나뉜다. 구분된 **장면들은 서로 연결**되면서 행동의 연속성이나 카메라의 위치에 따른 시선의 변화를 통해 영화의 내용을 담아내게 된다. 장면 속에 담긴 여러 표현들은 영상을 구성하는 **요소와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보기 >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택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택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202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 보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202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넓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 서영보, 「문의당기」 -

-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

옛날 석가모니불이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涅槃)에 들었는데,  
지금 역시 그 **같은** 자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하네.

- ①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 ③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비유**는 원래 표현하려는 원관념이 가진 추상적인 속성을 보조관념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서로 속성이 유사하지만, 다른 범주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이질적이다. 따라서 **비유에 활용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동질성(유사성)과 이질성이 동시에 드러나야 한다**. 이러한 비유에 활용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에는 제한이 없다. ⇨ 세계의 자아화

작가는 비유를 통해 시적 의미(⇨ 내면세계)를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작가의 개성과 주관을 드러내는 장치로써 비유를 활용하여 미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994학년도 1차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제시된 구절(옛날 석가모니불이~) 중 사용된 표현법과 동일한 표현법을 활용한 선지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된 구절의 ‘같은’만 보고 직유(비유)가 활용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같은’은 과거 열반에 들어간 ‘석가모니불’과 동일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제시된 구절에서는 비유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한편,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 대구)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 ✓ 시는 원관념(추상적인 개념)을 보조 관념(구체적인 이미지)을 통해 형상화(구체화 ⇨ 묘사)하여 드러낸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미지(보조 관념)를 활용한 개념(원관념)의 형상화는 두 소재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사성은 일반적으로 상식과 같은 보편적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 그러나 형상화가 반드시 보편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는 않는다. 화자 개인의 주관에 반영하여 개성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 **세계의 자아화**

-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겨웠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가)의 2연에서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는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마치 ‘무거운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힘겨웠던 젊은 시절을 지나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 이는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젊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젖은 구두’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②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가)의 2연을 통해 화자가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어’ ‘가쁜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즉,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무겁고 버거웠던 젊은 시절을 지나 어느덧 황혼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화자는 ‘가쁜한’ 마음으로 ‘바다’로 기울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 내리막길에서 ‘시야가 열리는’ ‘바다’를 마주한 화자는 이를 ‘잔잔한 세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는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지나 ‘가쁜한’ 마음, 즉 평온한 상태에 이른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
  - 이는 고요함과 평화로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을 ‘잔잔한’ 모습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나)는 1연에서 ‘태양’과 ‘달빛’에 각각 ‘뜨겁고 부신’,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이라는 감각적인 묘사를 덧붙여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태양’과 ‘달빛’을 지향하는 성격을 ‘체질’이라는 표현을 통해 ‘태양 체질’, ‘달빛 체질’이라고 칭하고 있다.
  - 이는 ‘체질(지향하는 성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뜨겁고 부신’,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가)는 5연에서 ‘해가 저물’ 때 화자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설렘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가 저물’ 때 화자의 내면세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레는 구름’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나)의 3연에서 ‘밤’은 ‘달’을 지향하는 화자의 ‘조상’에게 있어 ‘낮’ 동안 만나지 못했던 ‘달’을 다시 보게 되는, 즉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시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기쁨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조상’이 밤에 느끼는 심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한 것이다.
  - 이처럼 (가)와 (나)에서는 소재 간의 유사성을 통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이때의 유사성은 보편적 인식보다는 화자의 주관적인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인 ‘구름’과 ‘달’을 각각 ‘설레는 구름’, ‘크나큰 기쁨’이라는 화자의 주관에 투영된(⇨ 개성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 (가)는 2연과 5연에서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와 ‘자갈이 빛나는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5연에서 화자는 ‘길’과, ‘길’을 걸으며 인식되는 풍경을 ‘기우는 세계’라고 이르며 ‘신비스’럽다고 표현하

고 있다. 따라서 2연과 5연의 해당 대목에서 화자가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표현한 것에는 그것을 신비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하는 내면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대목을 포함하여 (가)에서 화자가 희망을 추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나)는 2연에서 ‘밝은 달빛’이라는 표현을 통해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화자가 ‘달’을 지향하는 ‘달빛 체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대목에 ‘달’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화자의 내면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대목을 포함하여 (나)에서 화자가 희망을 추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또한 (나)의 1연에서는 ‘뜨겁고 (눈)부신’ ‘태양’과 달리, ‘달’은 ‘아늑하고 조용한’ 존재로 묘사하여 두 대상을 대비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과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달’이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고 볼 수도 없다.
- **참고** <보기>에 의하면, 시는 추상적인 개념(원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보조 관념)를 통해 형상화하여 드러낸다. 그러나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모두 구체적인 이미지의 대응일 뿐이다. 발문에서는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재감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맥락에서도 ⑤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3%	5%	82%	6%	2%
언매	1%	3%	89%	3%	1%

- ㉠ 형태가 처음 생겨나면 그 종류가 이미 구별되니, 누가 바꿀 수 있겠는가.
- ㉡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 ㉢ 나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 ㉣ 군은 독서하는 사람이니 가까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해 보게.
- ㉤ 지금 군은 집으로 군의 몸을 수용하고, 몸으로 군의 마음을 수용하고, 마음으로 과연 능히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였으니

①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에서 글쓴이(필자) ‘나’는 ‘~있겠는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외적 형태(몸과 작음)는 사물이 처음 생겨날 때 이미 고정되고 구별되어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 이전에 글쓴이(필자) ‘나’는 사물의 실제 크기는 고정되어 바뀌지 않지만,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에서 ‘성인(聖人)’은 ‘사물은 큰데 사람이 그것을 작게 여기는’ 것의 예시로 언급되고 있다.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을 두고, “내가 무슨 부족할 것이 있겠는가.”라며 자신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큰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인(聖人)’은 실제로는 거대한 ‘진나라와 초나라의 부유함’을 작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은 인용의 방식을 통해, 사물의 크기에 대한 글쓴이(필자)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에서 글쓴이(필자)는 ‘사양’이 언젠가 자신에게 ‘집의 규모를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표정에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듯한 기색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한편, 이를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양'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양'에게 글쓴이(필자) '나'는 '작다고 여기면 작은 것이고 크다고 여기면 큰 것'이라며, 사물의 크고 작음은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 이러한 맥락에서 글쓴이(필자)는 ㉠에서 '사양'에게 '~ 생각해 보게.'라며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내면의 것을 시험 삼아 생각하기를 권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글쓴이(필자) '나'가 말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 ㉡에서 글쓴이(필자) '나'는 '집'에서 '몸', '몸'에서 '마음', '마음'에서 '천지'로 이어지는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사양'에게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글쓴이(필자) '나'는 사물의 크고 작음은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 따르면, '집'은 '몸'을 수용하고, '몸'은 '마음'을 수용하며, '마음'은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을 수용하고 있다. ㉡ 이전에 글쓴이(필자) '나'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마음'은 의로운 행동을 반복하여 수양하면, 무한히 확장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따라서 '사양'이 사는 '용연사'와 같이 작은 '집'이어도, '마음'을 품은 '몸'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집'은 온 세상을 담은 그릇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작은 '용연사'가 크게 인식될 것이다.

##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4%	5%	5%	75%	7%
언매	3%	3%	4%	81%	7%

**선생님 :**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걸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가)에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는 '길'을 걸으며 자신의 힘겨웠던 젊은 시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때, 화자가 걷고 있는 '길'은 화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화자가 '길'에 있는 '유자남에 유자가 열리'는 현상에 주목한 것은,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들이 당연함을 부각한 것이라 감상할 수 있다.
  - (다)에서 글쓴이(필자)는 사물의 형태, 즉 크고 작음에 대한 생각은, 이를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글쓴이(필자)는,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양'에게 그의 집은 처자식을 모두 수용할 뿐만 아니라, '국화의 향기와 빛깔', '푸르른 산빛'과 같은 '모든 것을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수용하는 것이 많은 집이기에, 마음먹기에 따라 크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를 통해 이걸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가)의 화자가 걷고 있는 경사진 '길'은 화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성찰하는 공간이자, 화자의 황혼기를 의미한다고 감상할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길'을 걸으며 '신비스러운 경사감'을 느끼고 있다. 한편, 화자가 '경사감'을 '신비스'럽다고 인식함으로써,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기대감'이란 **다가오지**

않은 일을 생각하며 기다릴 때의 내면세계를 의미하는 데, 「선생님」의 발화에 따르면,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상황, 즉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 (다)에서 「향기와 빛깔이 한데 모이」는 「뜰」은 「사양」의 집(의 일부)을 의미한다. 글쓴이(필자)는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양」에게 「뜰」을 언급하며, 「사양」의 집은 수용하는 것이 많으니, 작다고 여기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한편, 이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기대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심정. 용례 기대감을 갖다.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가)에서 화자는 「바다」로 기운 「길」을 걷고 있다. 「시아가 열리」며 인식되는 「바다」를 본 화자는 「바다」가 마치 「하늘과 맞닿」아 있는 것 같다고 인식한다. 한편, 이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지는 않다. 화자는 이미 힘들었던 젊은 시절을 지나 가뭄한 마음으로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그렇기에 「바다」를 「잔잔한 세계」라고 인식하고 있다.

→ (다)에서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것은 「사양」의 집이 수용하는 것으로, 「사양」의 집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있기에 작다고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글쓴이(필자)가 언급한 대상이다. 한편, 이를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가)에서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은 「길」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는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특히 화자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저녁 햇살」이 비추며, 「바다로 기울고」 있는 「(내리막)길」은 화자의 황혼기를 의미한다고 감상할 수 있다. 마치 「무거운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버거웠던 젊은 시절을 지나, 「가뭄한」 마음으로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에게 자신의 황혼기와 같은 「길」은 「신비스러」우며,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다.

→ (다)에서 글쓴이(필자)는 「큼과 작음」이라는 사물의 형태는 이를 인식하는 주체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안정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

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가)에서 「기우는 세계」는 「바다로 기울고」 있는 「길」을 의미한다.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는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마치 「무거운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버거웠던 젊은 시절을 지나, 「가뭄한」 마음으로 황혼기에 접어든 화자에게 자신의 황혼기와 같은 「길」은 「신비스러」우며, 아름답게 느껴지고 있다. 또한 「당연한 길」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황혼기를 맞이하게 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우는 세계」, 즉 「길」이 황혼기의 불안정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 (다)에서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은, 비록 지극히 작은 집이지만, 만족하며 생활하는 「사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촌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피꼬리 아니로되 ㉔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놓고 무엇  
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달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㉕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별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며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화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달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sup>\*</sup>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며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나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㉖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올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나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㉗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흘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정관: 술.

(나)

㉘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쾌관하고<sup>\*</sup>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해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뒤편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sup>\*</sup>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시간에 이  
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sup>\*</sup>하  
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동문에 쾌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다)

㉙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㉚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 채현, 「석문가」 -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촌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피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 화자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계절적 배경은 춤지도 덤지도 않은 봄이다.

\* 편편이: 날날의 조각마다. 또는 날날의 조각으로. [용례] 깨어진  
접시 조각이 편편이 흩어졌다.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㉔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  
엇하리

- ✓ ‘비록 여자라도~’를 통해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해당 대목은 작품이 창작된 시대적 배경(⇨ 고전 시가)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다.
  - 당시 사대부가의 여자들은 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태평세에’ 꽃도 핀 지금, 아무리 여자라고 하더라도 나가서 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만큼 놀기 좋은 때임을 부각하고 있다.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 ✓ 화자는 사람들과 음력 2월 25일에 만나, 그날 하루는 다 제쳐두고 오직 놀기만 하려고 한다. ⇨ **일탈**
- \* **청명**: 이십사절기의 하나. 춘분(春分)과 곡우(穀雨)의 사이에 들며, 4월 5일 무렵이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㉕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 ✓ 손꼽아 기다리던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화자는 여종을 시켜 동네 여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 소식을 듣고 호화롭게 단장을 한 여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올리브영으로 모두 뛰어!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별에 바랜 베를 연반 물 들여 입고  
선명하게 나와 서서

- ✓ 다양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꽃단장한 여자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 **아미**: 누어나방의 눈썹이라는 뜻으로, 가늘고 길게 굽어진 아름다운 눈썹을 이르는 말. 미인의 눈썹을 이른다. [용례] 그녀는 고운 아미를 찌푸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 \* **연반물**: [옛말] 엷은 반물. [용례] 초록색도 아니웁고 당대홍 진분홍에 연반물도 아니웁고.

# 2018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  
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  
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서이다  
- 조지훈, 「고풍 의상」 -

‘아미’는 미인의 눈썹을 의미한다.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산 찾았으며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려느냐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이 제일이라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위 올라가서  
승지에 다닫거다

- ✓ 여자들은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 고개를 오르고 있다.
- \* **산명수려**: 산과 물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산수의 경치가 아름답다움을 이르는 말.
- \* **승지**: 경치가 좋은 곳. [용례] 승지를 구경하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층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런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 ✓ 경치를 둘러보던 화자는 ‘금오산’을 보고 ‘수양산’과 ‘충신’을 떠올리고 있다.
  - 화자는 금오산의 푸르름을 통해 백이와 숙제(충신)를 떠올리고 있다.
  - **참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자 천하는 모두 주나라를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 주나라의 곡식을 입에 대지 않고, ‘수양산’에 은거하며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지냈다. ⇨ **지조와 절개**
- ✓ 또한 화자는 ‘낙동강’을 보고 ‘성인’이 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 **참고** ‘백년하청’은 중국의 ‘황하’가 늘 흐려 맑을 때가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오랜 시일이 지나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한편, ‘황하’가 맑아지길 바랐던 삼국시대 위나라의 ‘이강’은,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출현한다(黃河清而聖人生)**”라고 말했다.
- ✓ 이처럼 화자가 ‘금오산’, ‘낙동강’을 보며 ‘충신’, ‘성인’을 떠올리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에 따른 것이다.

\* **황허강(황하)**: 중국 서부에서 북부로 흐르는 강. 황토와 뒤섞인 누런 강물로 이루어져 있다.  
 \* **충절**: 충성스러운 절개. **몽례** 충절의 고장.



수령님 세계 아닙니다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sup>\*</sup>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저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나**

\* 정관: 술.

- ✓ 여자들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며 어울리고 있다.
  - 사대부가의 부녀자들이기에, 집에서 ‘화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함께 먹는 화전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 그만큼 화자는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 **화전**: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진달래나 개나리, 국화 따위의 꽃잎이나 대추를 붙여서 기름에 지진 떡. **몽례** 진달래 꽃잎으로 **화전**을 부치다.  
 \* **수록진미**: 산과 바다에서 나는 온갖 진귀한 물건으로 차린, 맛이 좋은 음식. **몽례** 여객과 남객이 처소를 달리하여 자리를 잡고 앉으니, **수록진미**를 벌여 놓은 진연 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 **부녀자**: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몽례** 왜병은 노인이고 **부녀자**고 어린애고 가리지 않고 충격을 가해 학살을 감행했다.



언니 꽃 줌 그만 넣어

(중략)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①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나

- ✓ ‘청계변에 복성 꽃’과 ‘좋은 경치’를 본 화자는 이를 각각 ‘무릉원(이상향)’, ‘소선(蘇仙)의 적벽(赤壁)’, 이백(李白)의 채석(采石)’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 주변 풍광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 **참고** ‘적벽(赤壁)’, ‘채석(采石)’ 모두 중국 고사 속 절경을 의미한다. 1) ‘적벽(赤壁)’은 ‘소선(蘇仙)’이 뱃놀이를 즐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곳이고, 2) ‘채석(采石)’은 배를 타고 술을 마시던 ‘이백(李白)’이 강물에 뜬 달을 잡으려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공간이다.

\* **무릉도원**: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 '별천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진(晉)나라 때 호남(湖南) 무릉의 한 어부가 배를 저어 북송아꽃이 아름답게 핀 수원지로 올라가 굴속에서 진(秦)나라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하도 살기 좋아 그동안 바깥세상의 변천과 많은 세월이 지난 줄도 몰랐다고 한다. [용례] 그들은 아직도 **무릉도원**에서 살고 있군.

\* **의연하다**: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없다. [용례] **의연한** 태도.

# 202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월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적벽부」는 중국 송나라 '소동파(소선)'가 귀양을 가서 쓴 작품이다. 작중 '적벽(강)'은 '소동파'가 뱃놀이를 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소동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규중에 **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화자는 속이 후련해지고 있다.

\* **규중**: 부녀자가 거처하는 곳. [용례] 무슨 짐승의 소린지 **규중** 깊이 세상을 모르는 그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 **간장**: 1. 간과 창자.  
 2. '예'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용례] **간장**을 죄는 몇 분이 지나자, 날씨는 삼시간에 잠든 양같이 온순해진다.

\* **숙조**: 잠을 자거나 자려고 하는 새.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훑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 작자 미상, 「화전가」 -

- ✓ 계속 자연의 흥취에 빠져 있을 수 없는 화자는 마지못해 일어나고 있다. ⇨ **여운(감정의 지속)**
- ✓ 화자는 자연물(바위, 강산)에게 다시 찾아오겠다며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나)

㉠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 ✓ '공명', 즉 관직 생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 벼슬살이에는 영예와 치욕 모두가 존재한다.  
 → 이후 전개되는 내용을 통해, 화자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 **공명**: 공을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냄. 또는 그 이름. [용례] **공명**을 떨치다.

\* **영욕**: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용례] **영욕**의 세월.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 동문에 **쾌관하고**: 벼슬을 그만두고.

- ✓ '동문에 쾌관하고'를 통해 화자가 과거에 벼슬을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즉, 화자는 사대부다.  
 → 그러나 화자는 전려(자연)에 돌아와서 성현의 글을 읽었다. ⇨ **수양**  
 → 이때, '성경현전'을 '읽기를 파'했다는 것을 수양을 그만두었다는 의미로 감상해서는 안 된다. 한정된 고전 시가의 세계관에서, 사대부가 수양을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따라서 '읽기를 파'했다는 것은 책을 읽다가 잠시 덮어두고 쉬었다는 의미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19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 박재삼, 「추억에서」 -

① ‘해 다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군.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 홍순학, 「연행가」 -

# 2005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너희 등이 일향(一向)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나 나의 재주를 구경하라.”

하고, **언파(言罷)**에 무슨 진언(眞言)을 외오더니, 문득 공중으로 두 줄 무지개 일어나며 우박이 담아 붓듯이 오며 순식간에 급한 비와 설풍(雪風)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호진장졸(胡陣將卒)이며 말굽이 얼음에 붙어 떨어지지 아니하여 촌보(寸步)를 운동치 못할지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 **전려**: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의 집. 또는 그런 가정.

\* **성경현전**: 유학의 성현(聖賢)이 남긴 글. 성인(聖人)의 글을 ‘경(經)’이라고 하고, 현인(賢人)의 글을 ‘전(傳)’이라고 한다.

\* **파하다**: 어떤 일을 마치거나 그만두다. [용례] 학교가 **파하다**.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뒵에 얽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  
무엇으로 **대할**쏘니

\* 임고원망: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화자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가 ‘고기’를 살렸다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의 만족감이 반영된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 또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금 느끼는 즐거움에 견줄 만한 대상이 과연 세상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만한 대상이 없다)라며 만족감을 부각하고 있다.

\* **소요하다**: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돌아다니다. [용례] 살아생전에는 죄인들 덕분에 덕을 높일 수 있었고 죽어서는 또 극락 꽃밭에서 **소요**하는 신세, 그대 대성(大聖)은 무엇이나!

\* **천양지간**: 1. 하늘과 땅 사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이르는 말. [용례] **천양지간**에 이렇게 기막힌 노릇이 다 있다.

2.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용례] 재물이야 어찌 되었건 신분이 **천양지간**인데 말도 안 될 일이지.

# 2007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원수 보니 앞뜰 좌우에 일천 장사 칼과 창을 들고 북치고 나오고 여섯 줄의 미녀가 비단옷을 입고 춤추니  
웅장하고 화려하여 자못 봄 직하더라.

용왕더러 묻되,

“이 춤이 인간 세상에서 보지 못한 배라. **아지 못게라**, 이 무슨 곡조니이까.”

- 김만중, 「구운몽」 -

‘아지 못게라’는 ‘알지 못하겠구나’라는 의미이다.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승화귀진: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자연에 귀의하는 것.

✓ 화자는 지금처럼 자연 속에서 태평한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만족감**

→ 따라서 ㉠에는 세속적 성공(공명)에 대한 화자의 회의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감상할 수 있다.

→ 화자가 과거에 벼슬을 지냈음을 고려하면, ㉡에는 화자의 지난 세속적 삶에 대한 반성적 깨달음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사랑합니다



성찰 중인 할아버지

(다)

㉠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풍월이 벗이 되어 ㉡ 백운(白雲)에 누웠으니  
 백구(白鷗)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

<제2수>

- 채헌, 「석문가」 -

✓ 화자는 자연과 교감(친밀감 ↑)하는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자연 친화적 태도**  
 → 또한 화자는 이러한 삶을 지속하고 싶어 한다.

\* 벽수: 성균관이나 문묘에 있는 연못.

\* 풍월: 1.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용례] 전원 속에서 풍월을 벗하며 살다.

2.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대상으로 시를 짓고 흥취를 자아내어 즐겁게 놀. [용례] 운 직원 영감이 향교엘 척 올라오더니 마침 풍월을 하느라고 흥얼흥얼하고 앉았는 여러 장의와 선비들더러 밀도 끝도 없이...

3. 언어들은 짧은 지식. [용례] 내가 왜 그녀 앞에서 알팍한 풍월로 계속 되잖은 소리를 하고 있는지...

\* 백구: 갈매깃과의 새.



나는 자연인이다

## 2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7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8%	70%	3%	4%	12%
언매	6%	81%	1%	1%	8%

- ① 관념적 사유를 통해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 작품에서 관념적 사유는 '선', '악'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자아의 성찰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나)는 '성경현전 헤쳐 놓고'에서 내면을 수양하는 화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모습이 관념적 사유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 (가)와 (다)는 관념적 사유 및 내면을 수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 관념적 : 현실성이 없으며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것. [용례] 그 작가는 관념적인 소설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 관념적 : 몸과 마음을 갈고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림. [용례] 정신 수양.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 (가)에서 동네 부녀자들과 함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한때를 보낸 화자는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마지못해 일어나'며,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흠날리고 / 고향 산천 찾아오마'라고 한다. 해당 대목을 통해 화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다시 놀러 오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나)에서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는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괴 좋은가 하노라'를 통해 지금처럼 자연 속에서 태평한 생활을 하며 여생을 보내고자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다)에서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화자는 '백구야 백년을 함께 놀자 하노라'라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상황 : 일이 되어 가는 과정이나 형편. [용례] 상황이 유리하다.

- ③ 구체적 행위를 통해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가)에서 동네 부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화자는 '서산에 지는 해'를 보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마지못해 일어나'고 있다.  
 → (나), (다)에서는 대상의 유한한 속성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 ④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여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 (가), (나), (다)에서 대상의 이면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태도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은 확인할 수 없다.

- ⑤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 (가)에서 꽃놀이를 즐기기 위해 부녀자들과 모인 화자는 '고개' ⇨ '화전터' ⇨ '시냇가'로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 자연 경관(청계변에 복성 꽃, 좋은 경치)을 인식한 화자는, 이를 '무릉원', '소신(蘇仙)의 적벽(赤壁)', '이백(李白)의 채석(采石)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말하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가)의 화자는 탈속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따라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은 심화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나 시련가'라며 자연을 보고 '충신', '성인'과 같은 정치 현실과 관련 있는 대상을 떠올리는 것에서, 탈속적 가치의 지향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나)에서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 와서'를 통해 화자의 공간 이동이 드러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해당 대목은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귀의함을 의미하기에,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 (다)에서는 공간의 이동 과정이 드러나고 있지 않다. 한편, 평생 자연을 벗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탈속적 가치의 지향이라고 볼 수는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8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53%	6%	29%	9%	2%
언매	67%	3%	21%	6%	0%

- ㉠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 ㉡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 ㉣ 공명을 헤아리니 영육이 반이로다
- ㉤ 청산이 둘러 있고 벽수도 흘러간다

①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 ㉠은 꽃놀이를 나가기 위해 호화롭게 단장을 한 동네 부녀자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때, '차례대로 달아나니'와 '찬란하다'에서 각각 동적 속성과 그에 대한 화자의 인식(화려하다)이 드러나고는 있으나, 그 대상은 자연 경물이 아닌 동네 부녀자들의 '호화 장식'이다.

\* **경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 [용례] 고향의 **경물**이 그런대로 제 모습을 하고 내 의식에 닿아 오는 것은 긴 잠과도 같은 며칠이 지난 뒤가 된다.

②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 ㉡에서 화자는 인식하고 있는 자연 경관이 중국 고사 속 유명한 자연 절경인 '소선(蘇仙)의 적벽(赤壁)'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에서는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화자는 ㉢에서 '서산에 지는 해'와 '저녁 안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시간이 경과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인지한 화자는 '마지못해 일어'나며 꽃놀이를 즐기던 공간을 떠나고 있다. 이처럼 ㉢에서는 자연물(해, 안개)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④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 (나)의 화자는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화자가 ㉣에서 '공명(세속적 성취)'에 대해 '영육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과거 세속적 성취를 추구했던 것이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 **반성**

자주 나오는 질문

Q: ④번 선지에서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을 회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A: 회상은 과거 장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은 과거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느낀 소회를 드러낸 것일 뿐이다.

⑤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 ㉤은 자연(청산, 벽수)의 모습을 묘사하여 화자가 탈속적 공간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9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8%	78%	4%	4%	3%
언매	4%	88%	2%	2%	1%

㉠ 꽃                      ㉡ 백운(白雲)

- ① ㉠은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 (가)에서 ㉠을 인식한 화자는 꽃놀이를 나가려 하고 있다. 한편, ㉠을 통해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
- (다)에서 화자는 풍월(자연)을 벗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는 화자가 어울려 살아가는 자연의 일부로,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② ㉠은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 (가)의 화자는 ㉠을 보고 놀지 않을 수 없다며 꽃놀이를 나갈 ‘날짜를 정하’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고 바라’고 있다. 이처럼 ㉠은 꽃놀이 약속을 잡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가 ‘손꼽고 바라’던 꽃놀이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라고 할 수 있다.
- (다)의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는 자연의 일부이므로,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은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 (가)의 화자는 ㉠을 통해 봄이 왔음을 확인하고, 꽃놀이를 하러 나갈 날짜를 잡고 있다.
- (다)의 ㉡는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자연)이지만, 특정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는 아니다.
- ④ ㉠은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 (가)에서 ㉠을 본 화자는 ‘우리 비록 여자라도 ~ 아니 놀고 무엇하리’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 (다)의 ㉡는 자연의 일부로, 자연 친화적인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일 뿐,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아니다.
- ⑤ ㉠은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 (가)의 화자는 ㉠을 보고,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은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다)의 ㉡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화자가 친밀감을 느끼고 함께 어울리는 대상일 뿐,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0번	①	②	③	④	⑤
화작	31%	22%	6%	16%	23%
언매	43%	24%	3%	10%	17%

〈 보 기 〉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뎨'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가)의 화자는 '꽃'을 보고 '우리가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라고 한다. (가)가 고전 시가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화자는 당대 바깥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사대부가의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이러한 화자가 '하루 놀음(꽃놀이)'을 하는, 즉 잠시 일상을 벗어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자연은 일상적 공간이 아니라, 일탈적 공간이라 봄이 적절하다. 또한, 동네 부녀자들과 꽃놀이를 떠난 화자는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고 '화전'을 만들어 먹고 있다. 해당 대목에서는 화전을 구워 먹으며 '하루 놀음'을 즐기곤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날 뿐,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 (나)의 화자는 '동문에 쾌관하고 전려에 돌아온(벼슬을 그만두고 자연에 귀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중장에서 화자는 자연 속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뎨'의 '약'을 캐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중장에서 화자가 자연에서 태평하게 여생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중장에서 화자가 자연 속에서의 일상에 만족감을 드러내는 것에는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내면세계가 내포되어 있다고 감상할 수 있다.

자주 나오는 질문

Q : (가)에서 자연이 일탈적 공간이라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행위 또한 일탈적 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A : '시냇가'에 '정관(술)'을 걸어 놓고 '하루 놀음(꽃놀이)'을 하는 것은 일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관(술)'을 걸어두는 행위 자체가 일탈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정관(술)'을 걸어 놓는 것 자체에 일탈(집안일과 같은 일상에서의 해방)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해당 행위는 동네 부녀자들과 꽃놀이를 떠난 화자가 화전을 만들어 먹는 과정일 뿐이다.

# 2015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A·B)

나는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농삿집치고는 유난히도 맑끔한 마루청,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 않은 장독대,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길창 장다리꽃들……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녀의 손이 안 간 곳이 없으리라 싶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

② 일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준다.

'그녀'의 손을 매일 타서 깔끔한 '마루청', '울타리', '장다리꽃'은 일상적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2014학년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B)

병원 문지기라든지, 소방서 감시원이라든지, 극장의 매표원, 그런 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쓰는 일이 적고, 그 대신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일을 할 테다. 수위실 속에서 나는 몸의 병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나는 문간을 깨끗이 치우고 아침저녁으로 꽃밭에 물을 준다.

- 최인훈, 「광장」 -

'똑같은 움직임을 하루 종일 되풀이만 하면 되는' 것은 일상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해매고 다녔던 저 @ 난만한 봄길 이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④ @ :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길'로, 일탈적 삶에 대한 화자의 갈망이 간절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

화자는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기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방향'은 화자의 **일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선지의 '**일탈적 삶**'은 방향을 끝내고 자리를 잡은 상태를 의미한다.

-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가)의 화자는 '금오산'의 푸름을 보고 '충신'을 떠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유교적 가치인 '충'을 내면화한 사대부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나)의 화자는 관직을 그만두고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고 있다. 이는 벼슬에서 내려와서도 성현의 가르침을 담은 책을 읽으며 내면을 수양하는 것이다. 화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사대부로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나)에서 '청풍'과 '명월'을 다른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가)의 화자가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도)원(⇨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자연을 지향하는 사대부가의 내면세계가 드러나고 있다.
  - (나)의 화자는 '명월'을 보고 '아지 못게라(알지 못하여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라며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데 있어 '명월'만 한 대상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김'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 (가)에서 동네 부녀자들과 함께 화전을 만들어 먹던 화자는, '집에 앉아 수록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냐'라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사대부가의 여성이기에 집에서 화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함께 어울리며 먹는 화전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대부가 여성 화자가 느끼는 공동체적 흥취가 부각되고 있다.
  - (다)의 작자가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사대부가의 남성임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풍월(자연)'을 '벗'으

로 삼으며 살아가는, 즉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가 남성 화자가 느끼는 자족적 흥취가 드러나고 있다.

- \* **자족적** : 1.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성질이 있는 것. **[용례]** 자족적인 미소를 짓다.
- 2. 필요한 물건을 자기 스스로 충족시킬 만한 것. **[용례]** 자족적인 농업 사회.
- ⑤ (가)에서 '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 (가)에서 동네 부녀자들과 '꽃'과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화자는 '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사대부가 여성으로서 평소 '규중'에만 있던 화자가 '하루 놀음'을 하며 잠시간 해방감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 (다)의 작자가 밝혀져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사대부가의 남성임을 알 수 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가 '백구(⇨ 자연물)'와 '백년'을 놓고자 하는 대목에서, 사대부가 남성이 **지속적으로** 만족감을 추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또쇠 아버지와 치전(길성 아버지)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온다.

“이리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매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사랑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藥) 말아보는 ㉡ 선달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네요…….” 하고 이 늙은이는 별별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인모탕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포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 양덕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주재소로 좀 잡시다. 어서 옷 입으우.”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우. 어서 옷 갖다가 입우.”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 꼬깔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뚱그라서 고깔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삼시간에 마당이 뻘뻘하게 모여들었다. 원석이 처는 코끝이 빨개서 뛰어와서 뚱그란 두 눈을 뻘뻘 내젓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섰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꼬깔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잡시다.”

고깔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였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는 들렸다.

“그럼 갈 테건 당신도 잡시다.” 하며 ㉥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꼬깔 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원네를 개울려 가며 애원을 해 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중략)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 그러나 읍내의 청년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제 그 청년들은 원석을 붙들고,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올 바에야 오 늘로라도 나오슈.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짓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하며 남의 일 이건만 왜 그러는지 성벽을 내어서 여러 사람을 충동이는 것 같았다.

㉧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댁에 말해 볼까 하다가 편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

원석이기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다요. ㉨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고 뱃뱃하기가 바지랑대”던데…….”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다.

“그는 하여간에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데를 가시려우?”

거의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을 쳐다 보며 발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에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음질을 해 간다.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나 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기도 발을 멈추며 섰다.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 패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세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렵어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까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네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염상섭, 「두 출발」 -

[A]

\* 바지랑대 :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앞부분 줄거리]**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김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명절 떡을 훔쳐 온다. 이 떡으로 포쇠 아버지와 치전(길성 아버지)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치전이 급체로 죽는다. 이 일로 인해 순사가 양덕영감을 찾아온다.

- ✓ ‘김원석’은 위세를 떨치는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다. ⇨ **인물의 성격 파악**
- ✓ ‘순사’라는 표현을 통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순사’는 ‘치전’이 떡 먹기 내기를 하다가 급체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양덕영감’을 찾아왔다.

- \* **위세**: 사람을 두렵게 하여 복종하게 하는 힘. **[용례]** 위세에 놀리다.
- \* **머슴**: 주로 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내. **[용례]** 머슴을 두다.
- \* **급체**: 갑작스럽게 체함. 또는 그런 증세. **[용례]** 급체에 걸리다.
- \* **순사**: 일제 강점기에 둔, 경찰관의 가장 낮은 계급. 또는 그 계급의 사람. 지금의 순경에 해당한다. **[용례]** 일본인 순사.



뭇떡 급하게 먹으면 안됩니다

“이리오너라.” 하며 순사는 죄인이나 다루듯이 원석이의 소맷자락을 잡아 채친다. 가슴이 떨리나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사랑 마당에 들어서서도 원석이의 소매를 놓지 않고 큰방에다가 대고 주인을 부른다.

- ✓ 떡을 훔친 ‘원석’은 ‘순사’가 자신의 소맷자락을 잡아채자, 뒷걸음을 치르겠다고 다짐하며 진정하려 하고 있다.
  - 아무래도 ‘치전’이 자신이 훔친 떡으로 내기를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원석’은 **사건**과 관련하여 스스로 찢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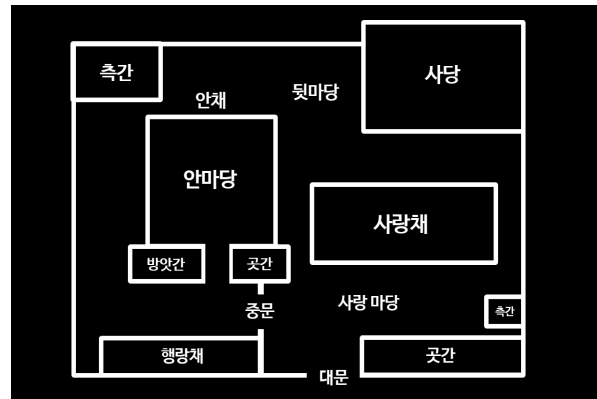
- ✓ ‘원석’을 붙잡은 ‘순사’는 그를 놓아주지 않은 채로 집주인을 부르고 있다.
  - ‘순사’가 ‘원석’을 잡고 놓아주지 않은 것에서, 그가 **사건**과 관련하여 ‘원석’을 체포하러 왔음을 알 수 있다.

\* **사랑**: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용례]** 할아버지가 찾으신다는 말에 현수는 **사랑**으로 나갔다.



빠가야로!!

### 찬우의 Pin Point



한옥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아두면, 작품을 보다 구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옥은 **중문**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거주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문의 안쪽인 **안채**에는 주로 여성들이 기거하며, 외부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남성들이 생활하는 **사랑채**에서 이루어졌다. 참고로 **행랑채**는 머슴들이 거처하는 공간이자, 창고로 활용되었다.

### # 2024학년도 6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 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 시절만 해도 혼사에 있어서만은 으레 근본의 어떠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양반 찌꺼기들은 말할 것도 없고 향품배(鄕品輩) 꼬트머리만 되어도 집안이 이렇고 저러함을 가장 큰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우 교전비(驕前婢)와 난봉난 **행랑것**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녀의 신분은 누구라도 고개를 저을 커다란 허물이었다. 아무리 소견이 들어 뒹뒹이가 쓸 만하고 살림에 규모가 있더라도 그녀의 내력을 번연하게 외던 근동 사람이라면 거들떠보려고도 않을 판이었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박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하고, 뽀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아, 그 배지 못한 **행랑것**허구, 짬이 무슨 짬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 박태원, 「골목 안」 -

\* **행랑것**: 예전에, 행랑에서 살던 하인을 낫잡아 이르던 말. [용례] 안식구는 전처만의 마누라 흥 씨와 **행랑것**들이 머릿방 아씨라 부르는 혼자된 며느리와 손녀 태임이까지 모두 세 식구였다.

노영감이 유리로 내다보다가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치니까 약(藥) 말아보는 ㉠ **선달**이 나왔다.  
“당신이 주인이요?”  
“아네요…….” 하고 이 늙은이는 별별 떨면서 뒤로 들어가더니 곧 양덕영감이 나왔다.  
“왜 그러우?”

양덕영감은 망건을 도드라지게 쓴 위에 곱다란 인모망건을 얹어 놓았다. 탐스런 대모풍잠이 은은히 비추인다. 말소리가 좀 거만한 듯한 데에 불끈한 순사는,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하고 연거푸 물었다.

㉢ 양덕영감은 왜 그러는지 잠깐 머뭇거리다가,

“네.” 하고 겨우, 그러나 아까보다는 좀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 ✓ ‘순사’가 집주인을 부르는 소리에 먼저 나가본 ‘선달’은 ‘순사’를 보고 겁에 질렸다.
- ✓ ‘선달’과 달리, 뒤이어 나간 ‘양덕영감’은 ‘순사’ 앞에서도 위풍당당한 모습이다.
  - ‘양덕영감’의 외양을 묘사하는 대목에서 그의 당당한 위세가 드러난다.
- ✓ 다소 거만한 듯한 ‘양덕영감’의 태도에 발끈한 ‘순사’는 재차 질문하여 그를 몰아붙이고 있다.
  - 이에 ‘양덕영감’은 처음보다는 한풀 꺾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 1) 지금까지 일인칭 표현이 활용되지 않았는데(⇒ 삼인칭 시점) 2) ‘왜 그러는지’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전지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대목을 통해,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작중 상황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

**한적 시점**

- \* **선달**: 문무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 조선 중기 이후에는 주로 무과에 급제하고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만을 가리켰다. [용례] 그의 선친 역시 겨우 백두를 면하고 **선달**로 늙었을 뿐이었다.
- \* **망건**: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 보통 말총, 곱소리 또는 머리카락으로 만든다. [용례] 그는 **망건**도 안 쓰고 맨상투 바람으로 사랑에서 자다가 붙들려 나왔다.
- \* **탕건**: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뜬다.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썼다. [용례] **탕건**을 쓰다.
- \* **호주**: 1. 한집안의 주장이 되는 사람. 2. 호적법에서, 한집안의 주인으로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이르던 말. [용례]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호주**가 되었다.
- \* **수그러들다**: 1. 안으로 굽어 들거나 기울어져 들어간다. [용례] 나 팔뚝은 밤이 되면 **수그러들**다. 2. 형세나 기세가 점점 줄어들다. [용례] 더위가 **수그러들**다.



너가 주인?



난데 어쩔거야!



라고 할 뻔 ^^

“주재소로 좀 갑시다. 어서 옷 입으우.”

“무슨 일인데요?”

“나도 모르우. 어서 옷 갖다가 입우.”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서고 © **꼬깔** 참봉은 누가 기별했는지 안에서 눈이 뚱그라서 고깔을 휘젓고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 할 것 없이 삼시간에 마당이 뻑뻑하게 모여들었다. 원석이 처는 코 끝이 빨개서 뛰어나와서 **똥그란 두 눈을 해해 내**젓다가 남편이 순사에게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틈을 비비고 나서다가 **꼬깔** 참봉께 **호령**만 당하고 사람의 틈으로 물러섰다.

- ✓ ‘순사’는 ‘원석’과 함께 ‘양덕영감’을 데려가려 하고 있다.
- ✓ 한바탕 소란에 ‘안양덕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 마당’에 모여들고 있다.

→ 개중에는 ‘순사’에게 붙들려 있는 ‘원석’을 보고 놀라 앞으로 나서려던 그의 아내도 있지만, 이내 ‘꼬깔 참봉’에게 호령을 듣고서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 **주재소**: 1. 파견되어 머무르는 곳.

2.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경찰의 말단 기관. 8·15 광복 후에 지서(支署)로 고쳤다. [용례] 술 처먹고서 조선 놈 치고받아도 **주재소** 갈 염려는 없고….

\* **참봉**: 조선 시대에, 여러 관아에 둔 종구품 벼슬. 능(陵), 원(園), 종친부, 돈령부, 봉상시, 사옹원, 내의원, 군기시 따위에 두었다.

\* **기별**: 1.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전하여 알게 함. [용례] 우리는 그에게서 **기별**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2. 조선 시대, 승정원(承政院)에서 처리한 일을 매일 아침 적어서 반포하던 일. 또는 그것을 적은 종이.

\* **고깔**: 증이나 무당, 풍물패 등이 머리에 쓰는, 끝이 뾰족하고 세모지게 만든 모자. [용례] 무대 위에서는 무용수가 하얀 **고깔**을 쓰고 승무를 추고 있었다.



사탐런에 버금갈 정도의 고깔런

#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렇다면 전제민만 오면 어머니를 졸라 무엇이든 한 가지는 갈아주도록 피하던 것이다.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옥상**, 오편사 사 먹소.”

하며 들어붙던 절름발이 늙은이를 가장 측은하게 여기고 있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라는 거였다.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던 생각이 나서 딱해 못견디겠슈.”

옹점이가 어머니한테 하던 말이다. 과자를 먹어 어디서 난 것이냐고 물으면 옹점이는 서슴지 않고,

“쭉쟁이 보리 한 종발 주구 **옥상**헌티 샀지.”

했다. **옥상**에게 곡식을 빼돌려 가면서까지 그녀가 내게 군것질을 시킨 이유는, **옥상**이라고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더 가늠한 뜻이 없지 않았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 이문구, 「관춘수필」 -

「관촌수필」에서 서술자 ‘나’가 과자를 파는 ‘절름발이 늪은이’를 ‘옥상’이라 부른 이유는, 그가 호객할 때면 매번 ‘옥상’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별명**

「두 출발」의 특정 인물이 ‘사랑채’에서 ‘꼬깔 참봉’이라 부른 이유는, 해당 인물이 평소에 ‘꼬깔(고깔)’을 쓰고 다녔기 때문이다.

이처럼 작중 인물의 특징(말버릇, 외양 등)이 해당 인물의 호칭이 될 수 있다.

“왜 그러슈? 치전이 죽은 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

고깔 참봉이 나서며 이렇게 물었다. ㉠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응?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중에서는 들렸다.

- ✓ ‘순사’가 ‘양덕영감’을 데려가려고 하자, ‘고깔 참봉’이 끼어들며, 자신이 대신 주재소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 ✓ ‘원석’은 ‘고깔 참봉’이 **사건**을 알고 있음에 놀라고 있다.
  -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는 이러한 ‘원석’의 내면 세계(⇨ 상황에 대한 추측)가 반영된 진술이다.
  - 이를 통해 제한적 시점의 특정 인물이 ‘원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 앞선 ‘원석’의 추측과 달리, **사건**에 대해 금시초문인 사람들도 있다.
  - ‘원석’의 시선에서 작중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제한적 시점**
  - ‘원석’은 ‘고깔 참봉’의 말을 듣고, **사건**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벌써 퍼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 이러한 ‘원석’의 입장에서는 “응? 치전이가 죽었어?”라는 소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 군중들이 모여 있다는 점과, ‘놀라는 소리도 들렸다.’라는 대목을 통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해당 발화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원석’의 내면세계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 갈 테건 당신도 갑시다.” 하며 ㉡ **순사**는 부자를 다 데리고 갈 눈치다. 꼬깔 참봉이 나중에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원내**를 개울려 가며 애원을 해 보았으나 끝끝내 고집을 세우고 어디로 도망이나 할 염려가 있는 듯이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혀서 앞장세우고 주재소로 갔다. **경관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 ㉢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 ✓ ‘양덕영감’과 ‘꼬깔 참봉’은 부자 관계다.
  - ‘꼬깔 참봉’의 말을 들은 ‘순사’는 부자 모두를 주재소로 데려가고 있다.
  - ‘경관(순사)’은 그간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도 당해내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원내**: ‘소인’을 조금 더 낮추어 이르는 말. **용례** **원내**가 합지오.  
 \* **경관**: ‘경찰 공무원’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용례** **경관** 두 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중략)**

치전이의 장사는 하여간 이와 같이 하여 그날 저녁 때에 눈발이 날리고 쓸쓸한 가운데 - 그러나 읍내의 청년 단체의 대표자의 호상까지 받고서 무사히 지냈다. 송장을 파묻고 내려올 제 그 청년들은 원석이를 붙들고,

“기위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나을 바에야 오늘로라도 나오슈. 우리도 이리 올 때에는 그 집에 가서 장비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할 작정이었으나 **그까지** 놈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소. 그래서 그만두었지만 저희도 좀 **정신 차릴 날**이 있으리다.” 하며 남의 일이건만 왜 그러는지 성벽을 내어서 여러 사람을 충동이는 것 같았다.

- ✓ ‘눈발이 날리고 **쓸쓸**하다를 통해 배경이 제시되고 있다.
- ✓ ‘치전’의 장례를 치른 후, ‘읍내의 청년 단체’ 사람들이 ‘원석’을 붙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청년들’의 발화를 통해, ‘원석’이 ‘안양덕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청년들’은 ‘치전’의 장례 비용을 부조하지 않은 ‘안양덕 집안’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 ‘원석’은 ‘청년들’이 남의 일에 왜 그렇게 성을 내면서 ‘안양덕 집안’에 앙심을 품도록 자극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 ‘-**것 같았다.**’를 통해서도 제한적 시점임이 드러난다.

- \* **장사**: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일. [용례] 장사를 치르다.
- \* **호상**: 1.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핌.  
2. 장례에 참석하여 상여 뒤를 따라감. 또는 그런 사람.  
3.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 피는 사람. [용례] 자기 집안 선산에 묻혀야 옳을 것이나 역시 떨어져서 왕래가 불편하다고 이 장례식의 호상을 맡은 성필이 아버지는 판단했다.
- \* **송장**: 죽은 사람의 몸을 이르는 말. [용례] 송장을 파묻다.
- \* **기위**: 다 끝나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 ‘벌써’, ‘앞서’의 뜻을 나타낸다. [용례] 기위 예까지 따라왔은즉 며칠 안 남은 혼인 구경이라도 좀 하고 가자.
- \* **부조**: 1. 잔칫집이나 상가(喪家) 따위에 돈이나 물건을 보내어 도와줌. 또는 돈이나 물건. [용례] 결혼식 부조.  
2. 남을 거들어서 도와주는 일. [용례] 생계 부조.
- \* **저희**: 1. ‘우리’의 낮춤말. [용례] 저희를 살려 주는 셈 치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2.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 [용례] 아들 내외가 또 사정을 하러 집에 찾아 왔지만 저희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 **충동이다**: 1. 흥분할 만큼 강한 자극을 주다.  
2.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다. [용례] 제기탈, 죽기는 이때까지 멀쩡하던 놈이 죽어? 떡 내기 하자고 당초에 충동인 놈은 누구기에?



사장님 나빠유

㊸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덕에 말해 볼까 하다가 편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

원석이도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

“그렇다마다요. ㊸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시다 그 뻔뻔하기가 바지랑대’던데…….”

이것은 또 다른 청년의 말이다.

\* 바지랑대: 빨랫줄을 받치는 긴 막대기.

- ✓ ‘청년들’은 저마다 ‘안양덕 집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맥락상 ‘청년들’은 ‘원석’처럼 머슴 일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읍내의 청년 단체(지부)’는 머슴들이 만든 단체일 것이다.

\*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그렇게. [용례] 아닌 게 아니라 일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다.

“그는 하여간에 김원석 씨는 그 집에서 나오면 당장 어테를 가시려우?”

거의 길성이 집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원석을 쳐다보며 발을 멈춘다. 길성 어머니는 어찌나 추운지 이제는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달음질을 해 간다.

“왜 그러시죠? …… 저두 이번 일에 무식한 생각이나마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 하고 원석이도 발을 멈추며 섰다.

- ✓ 함께 길을 걸어가며 대화를 나누던 ‘원석’과 ‘청년들’은 ‘길성이’의 집에 다다르고 있다.
- ✓ ‘청년들’ 중 한 명이 ‘안양덕 집안’에서 곧 나오게 될 ‘원석’의 거처를 묻고 있다.
  - ‘청년들’은 1) ‘읍내의 청년 단체’ 소속이며, 2) ‘원석’과 대화를 나누는 내내 ‘안양덕 집안’을 비방하여 반감을 갖도록 부추기는 이야기를 하고, 3) ‘원석’에게 어차피 ‘안양덕 집안’에서 쫓겨날 바에 먼저 나오라고 말하고 있다.
  - 이러한 맥락을 고려했을 때, ‘청년들’의 물음에는 이제 곧 ‘안양덕 집안’에서 나올 ‘원석’을 자신들의 단체로 포섭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 ⇒ **내면세계 파악**
  - 그러나 ‘청년들’의 의도와 달리, ‘원석’은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있어 서울행을 결정했다.

“서울루? 서울루 가서 뭘 하려우?”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땅 패기라도 부쳐서 먹고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겠지 마는요…….” 하며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

“글세 말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려어롭하다가는 여기 있는 것 보다도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아직 나이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이며 길성이 네 네 식구를 적어도 장래는 자기가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 또 이곳에 떨어져 있으려면 친구들에게 낯이 없어서 괴롭다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간단히 말하였다.

- 염상섭, 「두 출발」 -

- ✓ 특별히 무얼 할지 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서울에 가겠다는 ‘원석’에게 ‘청년’은 아무런 계획 없이 서울에 가서 어영부영 지내다 보면, 여기(시골)에 있는 것보다 못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  
 → 이에 ‘원석’은 이전보다는 구체적으로 서울에 가려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 ‘원석’은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할 것이라 답하고 있다.  
 → 머슴살이로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석’의 깨달음이 드러난다.  
 → 그가 공부를 하려는 것은, 죽은 ‘치전(길성 아버지)’이 남기고 간 처자식들의 뒤를 봐주기 위함이기도 하다.
- ✓ 또한, ‘안양덕 집안’에서 쫓겨난 후에도 여기 계속 머무르기엔 친구들을 볼 면목이 없다는 것도 서울을 떠나려는 이유에 포함된다.

\* **어려움하다**: 1. 말이나 행동을 똑똑하게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자꾸 우물쭈물하다. [용례] 오늘 저녁에 오겠느냐고 물으니까 김 과장은 몸이 고단하다고 **어려움하였다**.  
 2. 일을 대충 하고 눈을 속여 넘기다. [용례] 한현의 인사가 끝이 났다. 소심하고 그 위에 이미 늙기 때문에 세상만사를 **어려움하며** 무사히 지나기만으로 일삼는, 수상 황보인은…

### 31. [A]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1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8%	7%	72%	5%	5%
언매	7%	4%	81%	3%	3%

- ①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전모를 제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달하는 것을 두고, 제한적 시점이라고 한다. 제한적 시점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점에 국한되어 작중 상황, 인물이 제한적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특정 인물을 제외한 작중 인물들의 내면세계는 추측성 진술을 통해 제시된다.  
 → 한편, [A]의 ‘원석이는 **추운지**’에서는 ‘원석’의 내면세계를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A]에서는 제한적 시점이 활용되지 않았다.
- **참고** [A]에서는 삼인칭 관찰자 시점이 활용되었다. 삼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이처럼 서술자가 작중 인물들의 내면세계에 침투할 수 없다.

\* **전모**: 전체의 모습. 또는 전체의 내용. [용례] **전모**를 드러내다.  
 \* **-L지**: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용례]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 **삼인칭 관찰자 시점**: 화자가 작품의 상황 속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 관찰하고 묘사하는 역할만을 맡는 서술 방식. 작중 인물들의 내면으로 침투할 수 없으며, 화자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도 최소화된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현대 사실주의 소설에서 자주 사용된다.

- ②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 ‘서술자 개입’은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서술 방식이다. ‘서술자 개입’을 실현하는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작중 상황 및 인물에 대해 논하고 비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가 작품을 감상할 방향을 제시한다.  
 → [A]는 ‘원석이는 **추운지**’,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처럼 모든 작중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추측성 진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삼인칭 관찰자 시점**  
 → 삼인칭 시점이므로,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를 활용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가 작품에 직접 개입하여 작중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 만약 ‘원석이는 추운지’,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를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 것으로 보더라도, 서술자가 이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직접 인용 표현과 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특정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무얼 하자는 게 아니오라 ~ 있겠지마는요…….”과 “그 것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마는…….”에서는 직접 인용 표현을,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는 말’과 ‘뒤를 보아주어야겠다는 말’에서는 간접 인용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 [A]에서는 이처럼 직·간접 인용 표현을 혼용하여 서술행위를 결심한 이유에 대한 ‘원석’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직접 인용**: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인용. 인용한 문장의 앞뒤에 따옴표를 찍는다. [문례] (가)에서는 **직접 인용**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말한 대로 옮기지를 않았다.

\* **간접 인용**: 원문의 뜻을 살리면서 화자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인용. 대명사·공대법·시제 따위가 화자의 관점에서 바뀌고, 따옴표를 찍지 않는다. [문례] **간접 인용**에 쓰일 때는 ‘말다’의 어간에 ‘-라고’가 붙어 ‘말라고’가 된다.

**④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A]는 ‘원석’과 ‘청년(들)’이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⑤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 [A]는 ‘원석이는 추운지 어깨를 으쓱하며 두루마기 소매로 코를 쓱 씻는다.’, ‘여러 사람은 원석이의 나중 말을 들으려는 듯이 잠자코 쳐다본다.’처럼 모든 작중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추측성 진술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삼인칭 관찰자 시점**

→ 따라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32. ㉠~㉣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2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11%	8%	8%	56%	15%
언매	10%	6%	5%	63%	14%

㉠ 선달    ㉡ 양덕영감    ㉢ 고깔 참봉    ㉣ 순사

① ㉠은 ㉣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를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온다.

→ ‘노영감’은 ㉣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누구든지 나가 보라고 소리를’ 쳤다. 이에 ㉠은 사랑 마당으로 나가 ㉣를 마주하고 있다. 이후, ㉡와 ㉣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가 부른 주인은 ㉢가 아니라 ㉡였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은 ‘노영감’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 ㉡를 대신하여 마당으로 나갔다.

② ㉡는 불안한 상황에 처한 ㉠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 ㉣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에 ㉡를 대신하여 사랑 마당으로 나선 ㉠은, ㉣의 위세에 눌려 자신은 주인이 아니며 ‘벌벌 떨면서 뒤로 들어’갔다. 뒤이어 나온 ㉡는 ㉣에게 무슨 일인지 묻고 있다. 한편, ㉡가 ㉣와 대화를 시도한 것은 ㉣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지, 불안한 상황에 처한 ㉠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은 아니다.

③ ㉢는 ㉣가 ㉡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하는 것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한다.

→ ㉢는 ㉣가 ㉡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한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는 ㉣가 ㉡와 ㉢ 모두를 데려가려 하자, ‘허리를 굽실거리며 쇠네를 개 올려 가며 애원을’ 하고 있다.

\* **거만하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데가 있다. [문례] **거만한 표정**.

④ ㉢는 ㉡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 ㉢는 ㉡가 ㉣에게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치전이 죽은 데 (㉡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러슈?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라며 자신이 ㉣와 동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⑤ ㉣는 ㉢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여 ㉡를 주재소로 데리고 간다.

→ ㉔는 ㉒에게 ㉑ 대신 ‘치전’이 죽은 사건에 대해 더 잘 아는 자신이 주재소로 가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㉒는 “그럼 갈 테진 당신(㉔)도 갑시다.”라며 ㉑와 ㉔ 모두를 주재소로 데려고 가고 있다. 즉, ㉒는 ㉔가 제안한 바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33. ㉑~㉒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12%	50%	8%	15%	12%
언매	10%	59%	6%	13%	9%

- ㉑ 설령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받는 것이다!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
- ㉒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 ㉓ 이런 일은 이곳에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에, 아니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 ㉔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좀 양덕 덕에 말해 볼까 하다가 편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습죠.”
- ㉕ 우리 지부에서도 창립할 때 원조를 청했더니 단돈 일 원 한 장도 안 내고 그런 건 우리는 모릅니다고 뻔뻔하기가 바지랑대던데…….”

① ㉑: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애쓰고 있음이 나타난다.

→ ‘치전’은 ‘원석’이 ‘양덕영감’의 집에서 훔쳐온 떡을 먹다가 급제로 죽었다. 이에 ‘순사’는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양덕영감’의 집으로 찾아왔다. ‘순사’에게 붙잡힌 ‘원석’은 ㉑에서 ‘죄가 돌아’오는 상황을 가정하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원석’이 자신이 훔친 떡 때문에 ‘치전’이 죽은 일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 죄값을 마땅히 치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까지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였다.’는 표현에서, ‘원석’이 ‘순사’에게 붙잡힌 상황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㉒: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따른 반응을 나타낸다.

→ 제한적 시점에서는 특정 인물의 시선에 국한되어 작중 상황이 묘사된다. 윗글의 특정 인물은 ‘원석’이다.

→ ㉑에서 ‘원석’은 ‘꼬깔 참봉’이 “그 일(‘치전’이 죽은 일)이면 내가 자세히 아니 나하고 갑시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놀라고 있다. 그가 놀란 까닭은 이후 진술인 ‘별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대목에는 ‘치전’이 죽은 일이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는데, ‘꼬깔 참봉’의 발화를 통해 이미 소문이 퍼진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 ‘원석’의 내면세계가 반영되어 있다.

→ 그러나 곧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응? 치전이 죽었어?”라며 놀라는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치전’이 죽은 일을 알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서술자가 이 같은 반응을 언급한 것은, 소문이 벌써 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원석’의 시선에서 작중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③ ㉠: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 보며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준다.

→ ㉠은 위세를 떨치던 ‘안양덕 집안’의 부자가 ‘경관(순사)’에 의해 끌려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에서는 이런 일은 ‘주재소가 나와 선 지 수십 년 내’뿐만 아니라, ‘이 집의 가문(안양덕 집안)에 없던 일이었’음을 언급하며, ‘양덕영감’과 ‘고깔 참봉’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사건임을 보여 주고 있다.

\* **이례적**: 상례에서 벗어나 특이한 것. **용례** 규모가 작은 기업에 대해 2개월이나 조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④ ㉠: 대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의도한 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 ㉠에서 ‘원석’은 ‘양덕 닻’에게 ‘치전’의 장사에 부조를 요청하려 했으나, 그리하면 ‘핀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 두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원석’은 ‘치전’의 장사에 부조를 해달라는 것에 대한 ‘양덕 닻’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⑤ ㉠: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특정 사물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낸다.

→ ㉠에서 ‘또 다른 청년’은 과거에 지부를 창립할 때 ‘양덕 닻’에 원조를 청했지만 거절당했던 일을 언급하며, 매정한 ‘양덕 닻’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빗뻗한 ‘바지랑대’의 속성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 3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34번	①	②	③	④	⑤
화자	10%	16%	49%	8%	15%
언매	10%	14%	53%	7%	13%

— < 보 기 > —

이 작품은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엄격한 상하 관계에 기반한 신분 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을 잘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권위를 내세우며 자신의 지위를 고수하려는 모습이나,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작품은 현실에 작용하는 권력이 다양한 계층의 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재현하며,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① ‘똥그란 두 눈을 뽀뽀 내젓’는 원석의 처에게 ‘호령’하는 고깔 참봉의 모습에서,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겠군.

→ ‘원석의 처’는 ‘원석’이 ‘순사’에게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똥그란 두 눈을 뽀뽀 내젓’으며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원석’에게 향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내 ‘고깔 참봉’에게 호령만 당하고 물러나고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고깔 참봉’의 모습은 자신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며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② ‘그까짓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겠군.

→ ‘원석’과 ‘청년(들)’의 대화를 통해, ‘청년’도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원석’과 비슷한 처지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청년’은 ‘치전’의 장례에 거의 부조하지 않을 것이 변할 정도로 매정하고 인색한 ‘안양덕 집안’의 사람들을 ‘그까짓 놈’이라고 칭하며, 그들도 ‘정신 차릴 날’이 올 것이라 말하고 있다. 한편, [앞부분 줄거리]와 ‘양덕영감’이 잡혀가는 대목에 따르면, 그들은 오랜 시간 위세를 떨치던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그럼에도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청년’의 태도는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전통과 근대가 혼재하던 시기에 흔들리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에서, 당시에 작용했던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가 역전된 사회의 혼란상을 엿볼 수 있겠군.

→ '경관(순사)의 앞'에는 '상전 하인이 없었다'는 것은, 새로운 권력인 일제강점기의 순사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은 무의미했음을 뜻한다.

→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이는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혼재된 시기에,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 한편, 이를 통해 신분제 상하 관계의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고깔 참봉'이 머슴인 '원석의 처'에게 호통을 치는 대목에서, 여전히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 관계의 적용을 받고는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쫓겨나게' 된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 보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안양덕 집안'에서 '쫓겨나게' 된 '원석'은 "깨달은 것이 있어서 단정코 서울로 올라가렵니다."라며 서울로 올라가 공부를 해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즉, 머슴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 <보기>에 따르면, 이는 기존 삶의 구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는 면모를 드러내는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⑤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영감과 달리, '굽실'대며 '쉴네'라고까지 하는 고깔 참봉의 모습에서, 위 세대보다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양덕영감'의 말소리가 다소 거만하다고 생각한 '순사'는, 연거푸 질문하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양덕영감'은 이전보다는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고 있다. 한편, '고깔 참봉'은 '순사' 앞에서 자신을 '쉴네'라고까지 낮추어 말하며 '굽실'대고 있다.

→ <보기>에 따르면, 이러한 '고깔 참봉'의 태도는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위 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